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66-967 1982년 10월 29일(금) & 30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October 29 & 3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NOV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영규
편 집 인: 이석현
인 쇄 인: 박정서
광 고 국 장: 송광호

한인회장은 인기없다?

3대째 계속된 단독출마
장순채씨팀 인준절차 남아

왜 이렇게 토론토한인회장은 인기가 없을까? 한인회장 선거에 연 3대째 닥친 불황이다.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7일 하오5시가 되도록 경쟁자가 나오지 않아 단독후보가 된 장순채, 이기훈, 변외섭씨 팀이 무난히 투표없이 제18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될 수 있게 되었다.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총회(정족수 100명)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독후보자를 인준한다. 27일 하오5시까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후보자를 기다렸던 김문량 한인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금년에는 선거방법을 바꾸어 예년과는 달리 회비납부자에 한해 인준총회에서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16대 강우석회장도 박태식·김광석부회장과 팀을 이뤄, 2년전에 출마했으나 아무도 경쟁자가 없자 무투표 당선(80년12월)됐다가

부회장 파의 마찰등으로 6개월만에 도중하차했다. 81년7월 한인회 파도집행부가 생긴 후 제17대 한인회장선거를 했으나 파도집행부의 박인순회장, 장영채부회장이 고순복씨(부회장후보)와 팀을 이뤄 단독 출마하는데 불과했다.

박인순회장도 18대회장 선거를 앞두고 "단독출마라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면서 자신도 회장후보자 물색에 나섰으나 결국은 실패했다고 실토했다.

장순채씨팀외에도 장영채 현부회장, 이상호씨등이 추천인등을 모았으나 마지막순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록마감일인 27일 하오부터 28일까지 신문사에는 계속 교민들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단독출마라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교민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1)단독출마는 민주주의 방식에 어긋나며, 2)회장으로 당선되더라도 지지기반이 없고, 3)선거없는 한인회는 교민들의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등이다.

김문량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신문공고외에도 회장출마 후보대상자를 물색, 출마를 권유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면서 "우리 3만교민이 다시 한번 반성해야될 점이라"고 말했다.

이웃 미국의 뉴욕, L.A등 대도시의 한인회장 선거는 과열,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가는 예도 있으나, 왜 토론토만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이에 대해 전 한인회장등 한인회에 직·간접으로 관계했던 교민들의 반응을 요약해보면,

한인회장은 1)2년간의 긴 세월동안 자기의 사업이나 가정을 희생해야 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보다 꾸지람 뿐이다. 2)토론토 교포들의 전반적 재정기반이 빈약, 여유있는 생활을 하면서 무보수로 한인회에 전력할 수 없다는것 3)각 친목, 체육, 경제, 향우회등의 군소단체들이 너무 거세다는 것등을 지적하고 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교회수 날로 늘어
200세대, 850여명당 1개꼴

토론토의 기독교 교회수가 1개 천주교회를 합쳐 36개로 늘어났다.

금년 10월중 창립된 교회만도 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토론토 은성교회가 장은덕 목사를 담임으로 지난 17일 창립됐고 스카보로교회가 강회섭목사를 중심으로 400 McCowan Rd.의 아파트 1층 회의실에서 발족됐다.

본 토론토 한국일보의 매주 목요일자 신문에 게재되는 교회안내판에 실린 토론토의 교회수는 모두 31개였다. 그러나 한인교회에서 갈라진 중앙한인연합교회와 한인(연합)교회(반병섭목사 최근 취임), 10월중 생긴 두 교회및 소속은 캐네디언교회이나 글렌·데이비스목사를 초빙, 약30명의 교민들이 한국말 예배를 보는 게이트·웨이·코뮤니티·처치내 한국인 모임까지 합치면 모두 36개가 된다.

여기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도원등 군소 모임까지 합치면 토론토내 신교 교회수는 40까지 육박한다.

토론토 교민수를 약3만으로추산하고 세대당 인구수를 4.2명으로 잡는다면 교민 857명당, 2백여 세대당 교회1개씩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인인구 약 750명인 위니펙에 교회가 둘이고, 한인세대수 약 800인 에드몬톤에 교회가 11개라는 통계를 참고로 한다면 캐나다 전체 한인사회는 세대 200 미만에 교회 1개 꼴이다.

천주교회는 교인 2,600명, 세대수 600이나 아직 1개 교회로 머무른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토론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K모씨는 27일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국이나 해외 교민사회에서 공통된 사회현상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국사람 특유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볼만한 문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스모그에 싸인 토론토, 운전과 조깅 삼가도록.

◆2,3일간 토론토주변의 상공에는 짙은 스모그가 끼어 자동차운전에 위협을 주고있다. 27일 저녁8시현재 공해지수는 7년래 최악인 54까지 올라갔다. 주환경성은 온타리오주 6개 산업도시에 매연 분출을 줄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스모그나 안개로 앞이 잘 분간 안되는 날에는 조깅이나 운전을 되도록 삼가는게 안전하다.

社告

교포「독립관」성금
본국판에 명단실려

본「한국일보」토론토지사가 캐나다 교포들의 모국「독립기념관」건립성금 제1차분을 서울본사로 송금(13명의 2천1백달러), 그 접수발표가 오늘(30일)자 한국판(제10461호) 8면에 각회사자 명단과 함께 실렸읍니다.

본지사는 동 모금을 계속중에 있으며,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서울본사로 제2차 송금할 예정입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다소불문
기 간: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겉봉이나 수표에 「독립기념관 기금」이라고 쓸것.

토론토 한국일보사

영어청취력 시험
전국 중·고2년생 대상

(서울28일=연합)한국의 문교부는 11월초에 전국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 청취력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문교부 관리가 2일 밝혔다.

이 관리에 의하면 시험문제는 KBS라디오를 통해 20분간 방송되며, 중학교는 9일, 고등학교는 11일에 각각 실시된다.

시험문제는 82학년도 1학기에 배운 영어교과서에서 출제된다. 테스트의 응시는 자유이며, 시험결과는 단지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석방 요구
김대중씨부인등

(서울 22일)광주사건 복역자의 친족, 김대중씨 부인 이희호씨등 30명이 22일 정치범 석방과 재소자에 대한 학대중지를 요구, 서울시내에서 무기한 연좌시위에 들어갔다고 외신이 전했다.

이들 일행은 광주사건에 관련, 징역 5년 판결을 받고 복역중 숨진 박관현 전 전남대학생회장의 사인을 한국정부가 은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측은 박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말했는데, 이들은 박씨가 옥중고문에 항의, 40일간의 단식투쟁끝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팔난민소탕 작전허가"
샤론, 청문회서

(예루살렘)아리엘·샤론국방상은 그가 개인적으로 레바논기독교민병대에서 서부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난민촌 2곳에 진입, PLO게릴라들을 색출토록 허락했다고 사법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것으로 25일 인용, 보도되었다.

샤론국방상은 레바논 민병대의 작전을 허가한 그의 결정은 레바논민병대들에 더욱 폭넓은 전투역할을 수행토록한 지난9월15일의 이스라엘 내각결정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방송및 군방송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뉴스보도들은 샤론국방상이 그가 숨기려는것이 전혀 없음을 과시하기위해 3인사법위원회에서 공개증언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단 회의장을 떠났던 기자들에겐 재방청이 금지되었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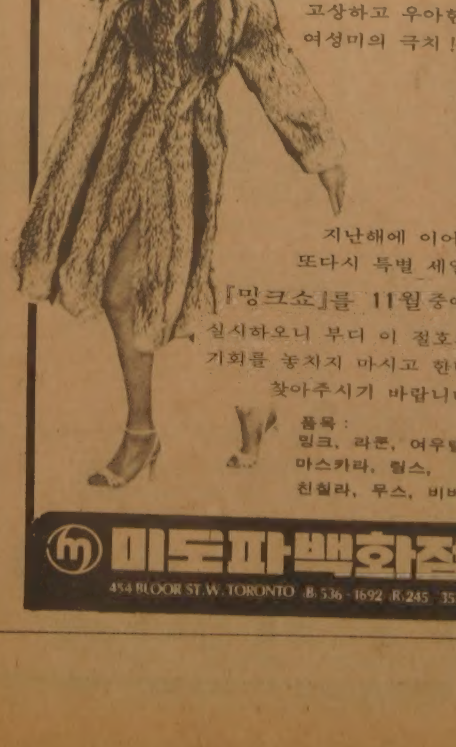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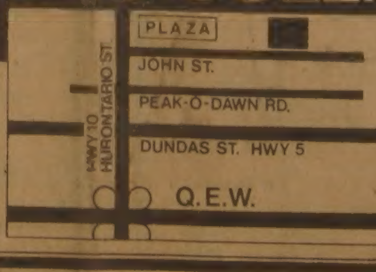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숙녀의 꿈
고상하고 우아한 여성미의 극치!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 세일 『밍크쇼』를 11월중에 실시하오니 부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밍크, 라쿤, 여우털 마스카라, 밀스, 친칠라, 무스, 비버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현

재카나다한인스키협회
제1회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날 자: 1982년11월4일(목) 6시30분
장 소: Inn on the Park (Edward Room)
문의처: 박경택 (☎: 491-1931)
Brandon Sports (☎: 598-3732)
(※스키협회가입 또는 문의환영)

재카나다한인스키협회
회장 박경택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30일로 다가온 할로윈·데이

트릿으로 건강식품을

잭·오·랜턴은 들을 밝히는 초롱에서 유래

금년에는 할로윈·데이가 하루 앞당겨 30일로 결정되었다.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다 다음날 등교하는데 지장을 주지않게 하게 위하여 하루가 앞당겨진것.

할로윈의 역사는 옛선조들이 10월31일을 겨울 가축사육시즌이 시작되는 날로 간주한데서 유래된다.

그날밤 선조들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을 영접하기 위해 감자나 무우등의 속을 파내고 그속에 촛불을 넣어서 만든 초롱을 들고 나와 들을 밝혔다.

오늘날 가정의 창문에 Jack-O-Lantern(도깨비불)을 매달아 두는 풍습은 바로 여기에 유래된 것이다.

그들은 또한 달밝은 들판에 초롱을 들고 나갈때에 배가 고플 것을 대비해서 음식물이 담긴 백을 들고 다녔다. 오늘날 할로윈·데이에 바구니나 봉지등을 들고다니는 풍습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할로윈 풍습에는 사과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월31일에 사과를 깎을 때는 왼쪽 어깨위로 늘어뜨릴 수 있도록 길게 깎아야 된다는 미신이 있다.

바닥에 떨어진 사과껍질의 모양으로 앞으로 만날 진짜 애인의 이름의 첫글자를 점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할로윈·데이에 갖고 들어오는 과자에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영양학자들은 이날 어린이들이 여러가지 종류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부모는 특별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레르기정보협회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온 후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보따리를 펼쳐보고 포장되지 않은 음식물은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메트로·토론토의 국민보건부에 근무하는 영양전문가들은 이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식품으로는 봉지에 든 땅콩, 해바라기씨, 호박씨, 종이에 싼 치즈, 설탕안든 껌, 사과및 신선한 과일등이 적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20일 추계배구대회

25세이상의 여자부도 신설

추계배구대회가 지난봄 창설된 배구협회 주최로 오는 20일(토) 험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춘계대회에 이어 2번째 열리는 이번 추계대회는 4개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를 벌인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여자OB부를 신설, 25세이상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배구협회의 문영환 회장은 "한인사회에서 많은 대회가 있었으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교회 여신도회, 여고, 여대 동창회등이 적극 참여해 줄것을 요망했다.

지난 춘계대회에서는 남자대표부에 중앙한인연합교회, 여자대표부(연령제한없음)에 임마누엘교회, 남자OB부에 새한교회가 각각 우승했다.

배구대회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문영환회장(923-3846)이나 임승철 배구협회 사무장(755-9925)에게 신청하면 된다.

청량음료 판매경쟁

코크, 펩시 신제품 개발

청량음료 전쟁이 캐나다에서 또 다시 일고 있다.

주요 청량음료 제조회사들은 이번에는 설탕, 혹은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청량음료를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이려 하고 있다.

코카·콜라회사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이어트·코크(diet Coke)」라고 불리는 무설탕 드링크를 선보였으며, 캐나다 펩시·콜라회사는 27일 설탕은 함유되어 있으나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펩시·프리(Pepsi free)」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다이어트·펩시·프리(Diet Pepsi free)」등 2종을 선보였다.

이들 신종제품들은 11월1일부터 가게 진열장에 선보이게 된다.

1980년도 "콜라전쟁"때는 코카·콜라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고비로 총 7천3백만달러를 소비했으며, 펩시사는 6천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여름 연방정부가 단백질 함유 감미료 「aspartame」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무설탕 청량음료 제품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다.

캐나다청량음료협회의 티거·그레고 회장은 aspartame이 선보이기 이전의 무설탕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청량음료의 약 2.5%밖에 되지 않았는데 aspartame의 등장으로 인기가 계속 상승, 년말에는 10%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했다.

극단주의자에 납치 신부토막시체 발견

(벨파스트)경찰은 25일 개신교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납치됐던 한 캐톨릭신부의 7토막난 시체를 발견했다.

조셉·도네간신부(48)의 시체는 개신교도가 거주하는 동부벨파스트의 뒷골목에서 발견됐는데 개신교극단주의자들은 캐톨릭에이레 공화군이 개신교얼스터자원군의 토마스·코크래인(55)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도네간신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왔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黑도의 사나이 <97>

적선지대서 29매의 카피트가 팔렸다

29분의 1 ②

『다른 사람들은?』

김반장은 수사요원들을 둘러보았다.

『빠짐없이 체크했읍니다.』

요원들은 자신들이 조사해온 관계 숫자에 틀림이 없음을 장담했다.

『그렇다면 2백15장중에서 적선지대에 판매된 숫자를 가려내보지.』

10분쯤 지나 결과가 나왔다.

『모두 29매가 팔렸읍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질은 29분의 1이란 말인가?』

『……。』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29분의 1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들은 체질상 언제나 의심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려고들지를 않았다. 더구나 적선지대는 그들이 이미 여러차례 수색했고 현재도 5개반이 투입되어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시간후 센터에서는 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수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적선지대 수색부터 보고해봐.』

대머리 범부장이 작은눈을 치뜨고 물었다. 적선지대는 제1반부터 5반까지 5개반이 전담하고 있었다. 모두가 지도에 그려진 적선지대로 시선을 모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읍니다.』

제1반장이 기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색은 다 끝냈나?』

『아직 계속하고 있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속도보다 정확히 조사하란 말이야.』

朴 男 그림

『알았읍니다.』

『다음 6반, 7반 보고해봐.』

『출국자중에 모세란는 이름은 없었읍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읍니다. 몸[illegible]없이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였다가 입국한 자들중 최근에 실종된 사람도 없었읍니다. [illegible]자들도 모두 체크했지만 이상이 없었읍니다.』

대머리의 눈이 더욱 작아지고 있었다.

『8반, 9반!』

『최근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실종자는 없읍니다.』

『실종 보고가 없었다는건가?』

『네, 그렇습니다.』

『만일 실종자보고가 안됐다면?』

전담 반장 두명은 대답을못하고 머뭇거렸다.

『보고가 안됐다면 어떡할거야?』

대머리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 따위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최근 입국자만 조사하면 어떡해? 모세라는 인물이 만일 외국인 이라면 몇년 전에 입국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말이야?』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8반 반장이 얼른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대머리는 두 사람을 흘겨본 다음 이마에 번진 땀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 장순채씨 인터뷰 >

"3만 교민 결속 다지겠다."

"3만교민들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장순채 제18대 한인회장 후보. 아직 총회의 인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회장자리는 '따놓은 당상(堂上)'이다.

장회장후보는 "한인회는 교민행사 위주보다 교민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체육대회, 야구대회, 미인대회등 각종 행사는 해당 단체에 맡기고 한인회는 이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제 사위도 얻고 사업체(아리랑식당)의 기반도 튼튼해져 집안이나 돈걱정없이 한인회를 위해 전력 봉사할 수 있다는 장후보는 "한인회는 교민들의 참여없이는 힘들다"고 전제한 후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한민족의 힘을 보여주자 고 역설했다.

장후보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1)한인회사업을 교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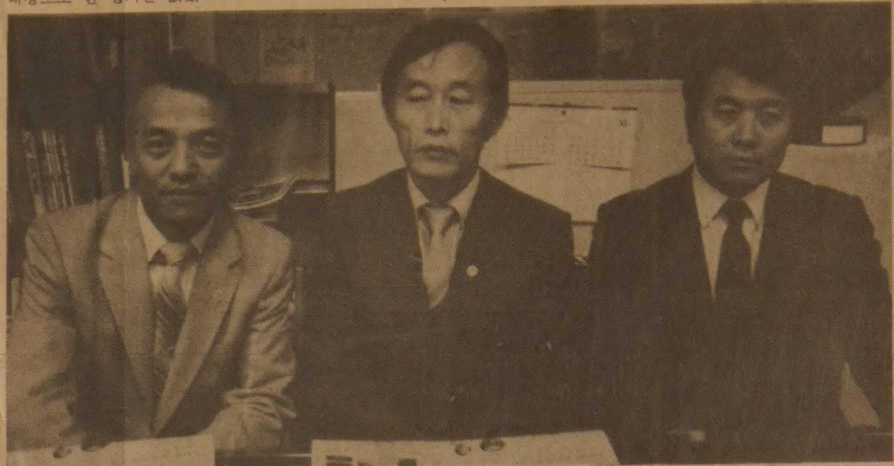
출신지방 조화이룬 회장단

1.2세간의 대화가 없어

위해 한인회보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며, 2)새로운 이민자를 위한 안내책자등을 만들어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등에 비치하고, 3)2세들을 위한 문화사업등을 적극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민들의 결속을 위해 서울출신의 이기훈씨와 경북출신의 변의섭씨를 부회장후보로 정했다는 장회장후보의 고향은 전남 광주로서 부인 서매서 여사와 2남1녀를 두고있다.

66년에 서독으로 갔다 69년 캐나다에 이주한 장후보는 이민증가방안을 묻자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고 교민들의 결속등을 다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출마로 차기 한인회장단의 중책을 맡게될 장순채씨팀. 왼쪽부터 변의섭씨(부회장), 장씨, 이기훈씨(부회장).

은성교회 탄생 장은덕목사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토론토 은성교회가 지난 17일 창립됐다.

1년반전 이민, 최근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토론토로 온 장은덕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은성교회는 8 Amroth Ave.(Danforth & Woodbine)에 위치한다.

장목사는 서울서 20여년간 목회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 월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스트레스는 섹스·샐러드·스캇치로 풀라"

(런던, 온태리오)스트레스(Stress)는 섹스(Sex), 샐러드(Salad)및 스캇치(Scotch)로, 해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년간 스트레스를 연구해온 런던의 웨스턴·온태리오대학 교수인 존·하워드씨는 Stress를 글자로 풀어 해소법을 내놓았는데 그의 이론을 살펴보면,

"S"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및 왕성한 섹스(Sex),

"T"는 시간(Time)

"R"는 휴식, 안정(Relaxation)

"E"는 운동(Exercise)

"S"는 샐러드(Salad)와 좋은 영양

"S"는 스캇취(Scotch)술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하워드박사는 직업과 생활을 전반적으로 즐기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압박감이 날로 가중되는 것이 현대의 생활이므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완인장학기금 디너파티

1만달러 모금

완인장학기금을 위한 디너파티가 지난 23일 뉴서울식당에서 교민과 캐네디안 약 130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학기금으로 약 11,000달러가 모금되었다.

장학기금파티의 주선자인 이경태 태권도사범은 교민들을 대상으로 공 창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범은 그동안 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와의 불화로 혼자서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도장생을 수련시키고 있으나 언젠가는 협회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디너파티에는 완인태권도장 문하생들의 시범과 교포무용가 김미영씨의 5고무 최정자씨의 민요가락등이 선보였다.

<독자의 광장>

조국 다녀온 딸

윤영자(토론토 거주)

두달동안의 긴 여행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은 거므스름하게 탄 건강한 모습이다.

한국정부의 배려로 교포학생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여름방학에 갔다가 돌아왔다.

고향엔 그리운 부모님, 항상 바쁜 중에도 편지 잊지 않고 여러가지 서울 소식을 전해주는 어머니같은 언니, 동생들, 또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소식을 서로 전하는 많은 친구들—. 왜 보고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엄마의 이런 욕망을 억누르고 성인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딸 애를 보내야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일주일 동안 교육원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한글, 여러가지 한국의 발전상, 한국가정의 모습등 실내교육을 마치고, 남은 일주일간은 남한 이곳저곳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신나는 여행을 한 것이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 포항제철, 민속촌, 김유신장군묘, 자유의 집등.

석굴암은 어려서 엄마 아빠와 같이 갔었을 때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세히 볼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아 멀리서만 볼 수 있어서 나쁘더라고 한다. 그러나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일러주었다.

2주간 교육을 받는 동안 매일 숙식을 같이한 많은 한국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으며, 너무 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유익한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친척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교육원에서 일주일간의 이론을 공부할 때는 별로 흥미롭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더니 실제로 친척집, 친구집을 방문하며 이론에서 공부한 것이 실제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어서 그제서야 교육원에서의 강의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다.

여기서 떠날 때 얼마나 있고 싶으냐고 물으니 되도록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돌아오는 날짜를 8월30일로 해서 보내놓고는 엄마마음은 애가 한달은 이럭저럭 바쁘고 재미있겠지만 남은 한달은 멉기는 하고, 지루할텐데 하고 염려를 했는데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오랜 여행이 더욱 보람 있었음을 느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편지 연락이 있는, 어려서 헤어진 친구네 집도 가고 이 친구 저 친구들과 만나며 한국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가지 지식도 풍부함을 스스로 느끼고 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나가 대학교수가 되고 싶다 한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면학풍조를 호흡하고 왔음은 사실이다.

또한 학교의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반의 캐네디안 소녀친구여서 엄마는 항상 불만이었으며, 한국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더니 한국에 다녀와서 7년만에 만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반겨주어 캐네디안 친구와는 다른 깊은 정이 오감을 느끼고, 이제야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국말 하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동생들과 모이면 영어로만 항상 말하더니 공항에서 오는 차안에서 동생한테 "얘, 너 한국말로 해라"해서 아빠가 그 한마디에 흐뭇해 했지만 나는 「한국인」이란 긍지를 심어갖고 왔음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값진 보석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마의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역시 보람있는 여행이었음을 자신은 물론 부모까지도 깊이 인정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가보고 싶다 한다.

모국방문 하계학교를 마련해준 한국정부와 단원을 인솔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김창열 한인Y 총무님,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회를 놓쳐 하계학교에 참석치 못했던 교포학생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더욱 정부에 대한 요망은 이민사회에 큰 문제가되고 있는, 베이비시터로 하루해를 보내시는 많은 노인들에게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 걸어본다.

특별헌신예배

본 동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각 동문회및 교포 여러분을 아울러 초청합니다.

— 아 래 —

강 사 : 김 창 주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시무)
일 시 : 1982년 11월13일(토)
오후 7 시
장 소 :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 Tor.)

대광고등학교 동창회

<인사말씀>

지난 23일(토)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가진 저희 어머님(이덕인 여사) 칠순잔치에 참석해 주신 여러어르신들과 교인여러분, 친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우선 지상을 통해 인사말씀 드리오니, 양지하시옵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1982년 10월
가족대표
강대길
올림

감사의 말씀

지난 23일 토요일 저희들의 부친 김시몬옹의 7순 회갑잔치에 바쁘신중에 왕림하시여 사랑의 축복 하여주시고 많으신 선물과 화환을 기증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댁으로 찾아 뵈옵고 인사드림이 마땅하오나 사정상 지상을 통하여 사례의 말씀 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심을 복망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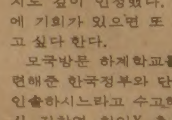
1982년10월27일

청첩인 :
장남 김성택
형제 일동

위임예배에의 초대

한인(연합)교회는 그간 뱅쿠버 한인연합교회에서 시무하시던 반병섭 목사님을 청빙하여 저희 교회를 아껴 주시던 모든 교우들과 교역자들을 모시고 토론토 서부노회의 주관으로 아래와같이 위임예배를 가지려고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11월 7일(일)
오후 3 시
장소 : 한인(연합)교회
69 William St. Weston
(Hwy 401 & Jane St.)
☎ : 243-9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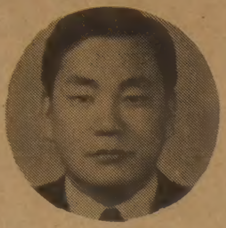


한인교회 당회원일동

「연합회」비판기사를 읽고 ①

이유식(칼가리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이글은 한인총연합회 서부지역 부회장인 캘거리의 이유식씨가 특별기고한 내용이다. 이씨는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총연합회에 몸담아온 회원이며, 전 캘거리한인회장이다.



◆이유식 씨

모신문 9월24일자 논단 한인총연합회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기사를 읽고 10여일 이상을 두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을것 같아 필을 들었다.

이글은 총연합회란 조직을 위하여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고 총연합회 회원의 한사람으로 선량한 교민들께 총연합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총연합회 창립시부터 관여해온 현재 회장단의 한사람으로서 이렇듯 앞뒤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무기명으로 총연합회를 신랄히 비판해도 이에대한 답이 없다면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누를 범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더더구나 이제 겨우 터전을 잡아가는 총연합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필을 들지 않을수 없었다.

총연합회란 조직의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익명으로 쓴 글을 기사화한 모신문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신문의 값어치와 존재가치란 사회의 공기로서 올바른 기사로 그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고 대국적인 면에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신문이어야 할 것이다. 신문이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못하고 흥미본위로 독자를 유도해 간다면 흥미본위에 의한 독자수의 증가로 신문사 경영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많은 뜻있는 교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기회에 외람되지만 캐나다 전국에 걸쳐 발행되고 있는 몇개 신문사에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은것은, 신문 자구 한자한자는 캐나다 5만 교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더더구나 두고온 조국 3,800만 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사화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연합회는 숙고끝에 창립된 기관
들러리…운운은 모욕적 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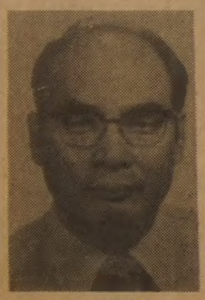
첫째, 총연합회의 구성에 관하여 동 논단은 오타와의 유태호씨 중심으로 몇몇이사 운운했는데 그러면 에드몬톤, 뱅쿠버, 나아가 교민수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토론토 등지의 회원들은 오타와 유태호씨 및 몇몇이사들의 들러리 역할을 했단 말인가?

토론토도 몬트리얼도 캘가리에도 우리의 교민은 살고있고 그 지역 한인회가 있고 한인회장이 있다. 78년도 총연합회가창립을 볼 때의 한인회장단과 그 이후 5년이 경과되도록 전국 14개지구 한인회장단이 마치 유태호 초대회장의 들러리 역할을 한양 인격에 모욕을 주는 처사에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다. 전국 14개지역 한인회장단은 그래도 그 지역 교민사회를 위한다고 각자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한인회장이란 감투를 쓰고 그 지역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거나 해온 사람들인데 어찌 어린 식으로 몰아부칠 수 있을까. 나자신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유태호씨를 중심으로한 몇몇 인사들 때문에 이 조직 창립시부터 관여해 온것은 아니다.

이 캐나다는 복합문화정책을 쓰고 있고 다른 소수민족은 그 민족을 대표로 하는 기관이 있어 연방정부에 그 민족을 대표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78년 총연합회가 창립되기 전까지 이렇다할 우리 민족을 대표로 할수 있었던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78년도 각지역 회장단이 서신, 전화에 의한 협의와 상의를 거듭한 끝에 오타와가 수도이니 오타와에 모였고 여기에서 창립을 보게 되었다. 회원문제와 대표기관으로의 역할 문제만 해도 동 논단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과 염려 속에서 창립을 보았던 것이다. 예컨대 전국적인 조직을 어떤 식으로 회원을 엄선하고 발전시키느냐는 문제로 우리대로는 많은 고심을 했던 것이다.

교민제위들이 알다시피 넓은 지역에 산재한 교민들을 규합하고 대표를 선출한다는 방법을 숙의했지만 별다른 좋은 안이 없어서 78년도 창립을 시점으로 14개지역 한인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을 정회원으로 하는 안을 채택했고 각지역 한인회장을 했거나 할 사람이 정회원이 됨으로 각지역 한인회장에 대한 비중을 감안, 전국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계속)

박재훈지휘 제2회 메시아공연
12월4일 메시·홀서, 입장권예매 시작



◆지휘자 박재훈씨

한인합창단의 제2회 메시아 대공연이 박재훈 지휘로 오는 12월4일(토) 저녁8시 메시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토론토 한인합창단 이사회 주최로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과 연합교회 성가대의 찬조로 이루어질 헨델곡 메시아 대공연의 총합창단원은 150명정도이며 반주는 주로 토론토 심포니 단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금년도 공연의 독창자로는 이대음대 성악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로열콘서버토리및 토론토 음대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소프라노 이주연씨, 미국 롬스음대교수인 메조·소프라노 양경자씨,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 교수인 테너 조영호씨, 텍사스 로복대 교수인 바리톤 신경욱씨가 초청된다.

입장권은 $12, $11, $8씩이며 합창단원이나 전화 222-4662, 222-2901로 주문하면 된다.

메시아 연주단원은 토론토 공연 이틀뒤인 6일에는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 홀에서 공연한다.

주최측은 연주시 어린이 입장, 음료수, 사진기, 녹음기 지참, 잡담등을 억제해 줄것등을 당부했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바리톤 신경욱씨

◆메조·소프라노 양경자씨

◆소프라노 이주연씨

◆테너 조영호씨

한인컴퓨터협회 5일 정기세미나

한인 컴퓨터협회(Coska) 정기세미나가 오는 5일(금) 하오 7시 비·포드 팍 고교(777 Bloor W.)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병돈씨가 「Port Folio Management」에 관해, 이태영씨가 「Canadian Banking System」에 관해 강연한다.

교민동정

◆강경범(보험인)=과거 생명보험협회 Agent겸 시험관리위원 역임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 Sovereign생명보험회사에 입사, 생명보험 가입자 모집일을 맡는다.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B-233-6236, R-279-7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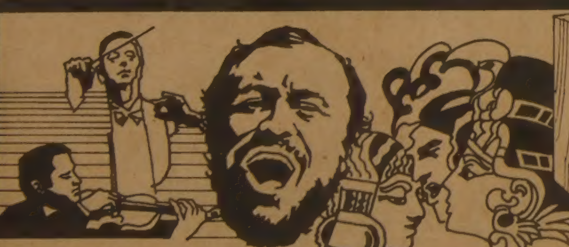
▲쿠·스타크양의 새영화—영국의 앤드류왕자와 함께 휴가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여배우 쿠·스타크양이 「청춘기의 남녀」라는 새영화에서 배우 안토니·앤드류와 공연하고있다. 이 영화는 다음달말께 상영될것이며 성인영화로 취급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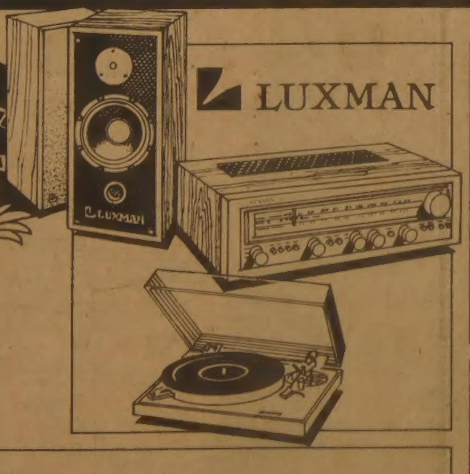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토: 오전11시~오후3시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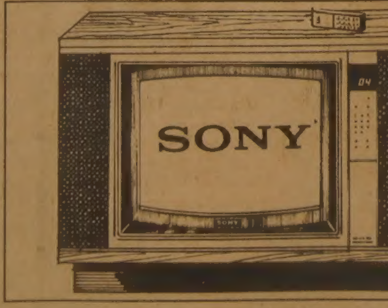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항섭

Yonge St. / Bayview Ave. / Sheppard Ave. / 401 / 404

〈추가특별보증기간〉
82년10월15일부터 83년1월30일까지에 한하여 5년간 완전 보증합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秋穀收買價 7.3%引上 확정

29일부터 7백만섬 全量현금

2等品 80kg 한가마 5만5천9백70원

정부는 26일 올해 秋穀의 정부수매가격을 7.3%올려 精穀 2등품기준80kg 가마당 지난해의 5만2천1백60원 보다 3천8백10원이 많은 5만5천9백70원으로 결정했다。수매량은 지난해의 6백35만섬보다 65만섬을 늘린 7백만섬으로확정, 29일부터 내년1월20일까지 전량 현금으로 수매키로 했다。수매자금 총액은 7천4백억원이다。

정부는 또 26일 0시를기해 보리쌀방출가격을 76.5kg가마당 현행 2만3천3백30원에서 20.0%(4천6백70원) 올려 2만8천원으로, 혼합곡은 10kg부대당 3천8백13원에서 12.3%(4백70원)를 인상, 4천2백83원에 방출키로했다。이에 따라 정부방출미의 소비자가격도 같은 폭으로올랐다。

인상된 추곡수매가격은 벼를 기준으로 할때 메벼(전체생산량의98%) 2등품기준 54kg 가마당 지난해의 2만5천3백80원보다 1천8백50원(7.3%) 많은 2만7천2백30원이다。

朴鍾文농수산부장관은 올해 추곡수매가격은 9월말현재 지난해 동기대비 도매물가상승률 1.9%나 소비자물가상승률 3.9%보다 높고 농가간 거래되는 가축류를 제외한 농가의 구입가격 상승률 6.3%보다 1.0%포인트 높은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올추곡수매량은 작황이 지난해의 3천5백16만섬보다 좋은 3천6백여만섬이 예상되고 신품종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 작년수매량보다 65만섬을늘려 7백만섬을 수매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영농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올영농자금의 상환연기와 자녀에대한 학자금융자를 실시하고 내년도영농자금도 1월중에 앞당겨 방출키로했다。

농수산부는 추곡수매가격 결정에따라 수매실시지침을 마련, 수매대금을줄때 통장지급이나 영농자금, 기타공과금의控除나 相計를 못하도록 하는한편 0.5정보미만의영세농이 출하하는 쌀은 10가마까지 우선수매토록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최근産地의 쌀값은 일반미의 경우 4만9천4백30원, 일반미는 5만3천9백60원으로수매가격보다 6천5백40~2천10원 이낮은수준에서 거래되고있다。

◇82年產 糧穀收買가격

	單重	1等	2等	等外	劃定等外
메벼(81年產)	54kg	26,570	25,380	22,580	20,250
메벼(82年產)		28,510	27,230	24,230	21,730

◇보리쌀및 혼합곡방출가격조정 (단위：원)

	단위	방출가격 현행	방출가격 조정	소비자가격 현행	소비자가격 조정
보리쌀	76.5kg	23,330	28,000	25,400	30,500
혼합곡	10kg	3,813	4,283	4,210	4,700

"은행株式 公賣참여 落札者명단 밝혀라"

10개常委 어제質疑·답변 계속

實名制실시 留保하라 질문

核연료工場 88년건설 답변

국회는 26일 하오 財務·內務등 10개常委를 열고 소관 부처의 업무現況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豫決委를 열어 81년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관한 정책질의를 끝냈으며 올림픽지원特委는 대한체육회등의 업무현황을 들었다。

[財務委] 崔明憲의원(民正)은 『實名制는 저축률의 저하와 증권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당초 추구하던 私債양성화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경제적요인과 경제외적상황을 고려하여 實名制를 금융소득에대한 金利상의 차등을 두는등 제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뒤 83년 1월부터의 전면실시를 유보하고 점진적보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은행민영화부문에 대해 집중질의를벌인 朴完奎의원(民韓)은 『조흥은행의경우 泰光산업系列 3개사가 大株主로 특히 자기자본비율 2·1%의 興國생명이 포함되어 있는가하면 이들의 여신총액은 5백57억원이고 상업은행의 大株主인 三星그룹의 3개회사중 동방생명은 자기자본비율이 1·4%』라면서『韓一은행 大株主인 大林산업은 1천5백20억원, 서울신탁은행 大株主인 東亞건설의 여신총액은 8백7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제일은행대주주인 大宇그룹의 여신총액은 2천7백2억원으로 주식회사 大宇는 제일은행 特認한도액 2백94억원을 훨씬 넘는 8백19억원의 대출특혜과 함께 4백98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면서 또『지급보증의 경우 제일은행은 자기자본 1천1백75억원보다 1백87%나 초과된 2천2백4억원의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全대통령내외가 李承福기념관옆에있는 生家模型을 둘러보고있다。

"北傀도발땐 첫3·4일중요"

全대통령、野戰軍사령부 不時방문

全斗煥대통령은 26일하오 李承福기념관 준공행사에 참석한뒤 중부지역 야전군사령부를 예고없이 시찰, 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앞으로의 전쟁은 6·25때와는 달리 開戰初 3、4일이 가장중요하다』고 전제,『北傀의 도발이 있을경우 현전선에서 적을 격멸할수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부대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全대통령은『北韓은 현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있어 그 돌파구를 찾으려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드높다』고 지적하고『전쟁이 발발하면 즉시그 자리에서 공세작전으로 나가 적을 격퇴하는 작전개념을발전시켜나가야한다』이라고강조했다。

美·日 1千해리防衛연구 내달着手

한반도有事時도 포함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 방위청은 지난8월 82년도美日안보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1천해리해상교통로의 공동작전연구를 오는 12월부터 美國측과 공동으로 착수키로하고 한반도유사시 일본의 3개해협을 봉쇄하는 경등을 내용으로하는 해상로防衛(시·레인)에 관한 실시요강을 마련했다。

이 실시요강은▲일본이 제3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제3국과의 전쟁상태에 돌입했을 경우에 美日안보조약에 따라 자위대가 대처하는 방안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위청은 일본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때는 물론 한반도 중동 인도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쓰가루(津輕) 쓰시마(對馬) 소야(宗谷)등 3개해협을 즉각 봉쇄하는 한편 말래카해협까지도 통제를 강화하는등 1천마일해상 방위를 위한 작업을 강력히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李承福기념관 참관

【平昌=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26일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江原도平昌군珍富面路洞里에 있는 李承福기념관 준공식에 참석…

IOC總長에 훈장

印尼 西마두라 油田시추 失敗

國勢지도 태풍경로·潮汐圖등 3개發刊

獨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이 큰뜻 이루게

<25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東山土建(株) (吳世鼎대표 임직원일동)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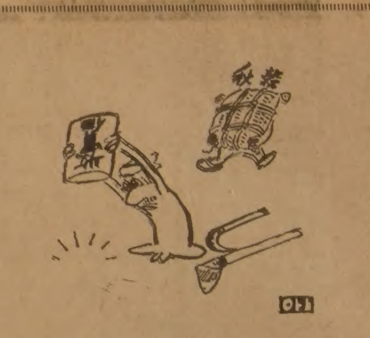
◇吳世鼎씨

▲東山土建(株) 대표이사 吳世鼎씨外 임직원一同=1천만원 ▲大圓鋼業(株) 代表및 任職員一同=5백20만8천9백87원 ▲東南合成工業(株) 대표이사 李義甲씨外 임직원一同=1백3만2천5백20원 ▲(宗團) 大巡眞理會 서울장안동지구 道人오한석씨=1백만원 ▲국제스카이웨이 곰의집 임직원一同=53만6천2백60원 ▲平澤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우식씨外 회원一同=50만원【平澤지국접수】 ▲대한상이군경회原州市·原城郡분회원一同=26만1천원【原州지국접수】 ▲思恩會(金寧培씨、李鍾國씨、崔永福씨、金明來씨、金逸祥씨、金昌載씨、李仁稙씨、兪龍根씨、世鉉씨、姜在豊씨、延景植씨、呂…)=22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비산1지구대표 강승길씨外道人一同=16만6천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신암8지구대표 박귀주씨外道人一同=10만원【大邱지사접수】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산격동8지구대표 김옥자씨外道人一同=10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대현동8지구대표 이태주씨外道人一同=10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대명8지구(2차분) 대표 조필남씨外道人一同=10만원【〃】 ▲(종단) 大巡眞理會大邱지부 대명8지구대표 김일린씨外道人一同=10만원【〃】 ▲韓國試藥(株) 작원一同=15만1천원【영동보급소접수】

- 大圓鋼業(株) 대표 임직원 5백20만원
- 東南合成工業 李義甲대표 外 1백3만원
- 大巡眞理會 오한석씨 1백만원
- 스카이웨이 곰의집 53만원
- 平澤라이온스클럽 50만원
- 原州·原城상이군경회 26만원
- 思恩會 22만원
- 大巡眞理會(大邱 비산1지구) 16만원
- 〃 (大邱 신암8지구) 10만원
- 〃 (大邱 산격8지구) 10만원
- 〃 (大邱 대현8지구) 10만원
- 〃 (大邱 대명8지구) 10만원
- 〃 (〃) 10만원
- 韓國試藥(株)직원 15만원

誠金명단 2面에 계속

社会漫評



이것빼고 저것빼고
저것빼고 이것빼고나니니까···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3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The 5th Concert of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제5회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매혹시킬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가
한인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라이어슨 무대에서
그 역사적인
막을 올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이올린 선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Nov. 13, 1982(Sat.) 8:00 p.m.
장 소 : Ryerson Theatre(43 Gerrard St. E.)
▸협 연 :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Soloist: Young-Dae Park(Violin)
▸지 휘 : 김 승 순
Conductor : Sung-Soon Kim
▸곡 목 : ●Beethoven Overture Coriolan Opus 62
●Bruch Violin Concerto No. 1 in G-Minor Opus 26
●Mozart; Symphony #41 (Jupiter)
▸예매처 : 각식품점 A석 : 10불, B석 : 8불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연락처 모자르트 음악학원 TEL: (416) 881-8211

佛、對蘇관계개선 拍車

7月정상회담 失敗·가스관報復계기

美蘇、東西관계 조정역할 회복 노력

焦点

프랑스와·미테랑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사회당정권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소련과의 관계는 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과 작년의 폴란드사태로 인해 악화일로를 걸어오던 중이었다.

프랑스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수준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전의 양국관계만을 회복하자는 소극적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60년대에 드골에의해 야심적으로 추진되었던 美·蘇간 조정자로서의 프랑스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슈미트前서독수상이 맡아왔던 東西관계에서의 역할을 미테랑이 떠맡겠다는 것일 것이다.

미테랑은 지난해5월 예상을 뒤엎고 집권에 성공했을 때 서방과의 결속을 재강조했고 전임자 못지않게 소련을 신랄히 비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테랑의 反蘇親西方정책은 지난7월 파리에서 열렸던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이 시베리아가스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장비공급을한 서구국가들에 보복조치를 취한것을 계기로 서서히변하기 시작했다.

레이건은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이 高金利를 낮추는댓가로 유럽국가가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레이건의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레이건은 미국의 금리를 유럽이 기대한수준까지 낮추지 않았고 오히려 유럽과 소련사이에 계약이 끝난 가스파이프라인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소련과의 곡물거래량을 오히려 증대시켰다.

프랑스의 모르와 수상은 지난달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미국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세계의균형을 파괴하는무법주의자』라고 미국을 비판했다.

프랑스회사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스터빈을 소련에 수출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듯이 프랑스회사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슈미트가 이끌었던 서독 사민당정권의 붕괴도 프랑스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킨 한요인이 된다. 소련은 슈미트가 해왔던 東西조정자의 역할을 대신해줄 인물을 구해야만될 입장에 빠졌기 때문이다.

소련은 미테랑대통령과 프랑스가 슈미트와 서독이 해왔던 역할을 대신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소련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최근들어 부쩍늘어난 프랑스 각료들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엿볼수 있다.

농업상 크레송이 폴란드 계엄선포이후 프랑스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최근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크레송은 양국간의 식품수출협정을 체결했다.

국가기획상 슈베느망은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할예정으로 있다. 그는 이방문에서 6억달러에 달하는프랑스의 시베리아가스파이프라인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약은 금년들어 양국간에 이뤄진 무역거래중 가장 규모가큰 것이다.

한편 클로드·셰이송외상은지난26일파리주재소련대사도 참석한 외교연설에서 프랑스는 소련과 경제、기술、과학、문화등 모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직접적으로 언급된건 아니지만 소련과의 정치적유대관계역시강화하겠다는뜻이 함축된 연설이었다.

날로증가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소련시장개척으로 메꿔보겠다는 프랑스측의 경제적이해와 슈미트의 대역을 미테랑에게서 찾으려는 소련측의 정치적타산이맞아 떨어진 느낌이다. 드골이 살아있었을때 프랑스는 소련의 가장큰 무역거래국이었다. 프랑스는 서독을 제치고 소련시장을 노리고있다.

미테랑의 사회당내 각료에 공산당원이 4명이나 끼어있다는 사실도 양국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조르지·마르셰 프랑스공산당수는 비록 그가 脫蘇독자노선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도가장 크렘린에 충실한 유럽공산주의자이다.

프랑스가 우선은 경제분야에서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다져가고있지만 이는멀지않아 정치외교적 관계개선에까지 확대될것으로보인다.

소련과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은 항상 경제협력증대가 선행되어 왔다.

【李炳圭기자】

"核武器선제사용 反對"

美가톨릭主敎團 선언문草案

◇佛마르셰 中共방문　中共의 실권자 鄧小平이 25일 中共을 방문중인 조르주·마르셰 프랑스공산당서기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이사진은 中共新華社통신이 제공한 것)　【北京25日AP電送=聯合】

"核戰발발땐 地球파멸"

美·유럽 대응戰略도 正當化안돼

【뉴욕AP=聯合】미국의 가톨릭 주교들은 25일 공개된「현대 무기에 관한 선언문」초안을 통해 핵무기의 어떠한 선제 사용도 비난하고 나섰다.

시카고의 조지프·버너딘대주교가 이끄는 주교위원회가 마련, 오는 83년에 정식발표될 1백5페이지의 이 선언문초안은 유럽에서 발생할지도모를 재래식 공격을 격퇴하기위해 필요하다면 전술核武器의 사용도 불사한다는 미국과 西歐동맹국들의『융통성있는 대응』전략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주교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이 초안은『우리는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제한된 범위라 할지라도 核戰이 발생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수 없다고 간주한다』고 주장하고『한국가에 의한 非核공격은 어디까지나 핵무기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격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초안은 이어 核戰이 제한될수 없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전제、이제 인류는『지구의 생존을 위협하는 核戰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미 1년전에 마련된 이 초안이 담고있는 核무기선제 사용비난에 대해 앞서 美백악관 고위관리들은 강력히비판한바 있다.

衛星상호파괴 禁止

蘇、美에 협상촉구

【유엔本部AP=聯合】소련은25일 美國에 대해 상대국의 인공위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협상을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소련외무성 관리인 블라디미르·페트로프스키는 이날 유엔총회 정치안보위원회회의에서美國이최근『우주를군사기지화하기위해집중적인노력을쏟고있다』고비난했다.

페트로프스키는『문제의핵심이 外界에서의 모든 무기경쟁을 막는데 있다』고 말하고 무기경쟁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할때 다른나라의위성파괴에 목적을 둔 킬러위성체제문제도 거론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民兵隊진입 직접許可

샤론證言 "이政府도 나의결정 支持"

【예루살렘AP聯合=聯合】샤론이스라엘 국방장관은 25일 자신이 직접 레바논 기독교 민병대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진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샤론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의 3인 베이루트학살사문위원회에 출석、공개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정부가 기독교 민병대의 난민촌진입을 허용한 자신의 결정을『원칙적으로』지지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관리 가운데 사브라와 샤틸라 두난민촌학살을 예상할수 백명의 양민이 학살되리라고 생각한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레바논 민병대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소탕하도록 허용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레바논인들이 전쟁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유도하기위한 정책에서 나온것이라고 설명했다.

캄聯政不信任부결 유엔總會

【유엔本部AP=聯合】유엔총회는 25일 노로돔·시아누크公이 이끄는 캄보디아聯政 유엔대표단의 총회참가자격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反90·贊29·기권26으로 부결시킴으로써 시아누크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캄보디아 연정대표단에 대한 불신임案은 베트남을포함 10개국이 제출했었다.

美·英안보論爭 蘇스파이 스캔들로

【런던·워싱턴聯AP=聯合】영국의 거물급 소련비밀경찰(KGB)요원의 영국망명으로 對蘇정보전략에 개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신문들이 영국극비정보통신센터에 침투한 소련간첩사건이 서방정보체제에 막심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도함에따라 25일 美·英양국간에 새로운 안보논쟁이 벌어졌다.

社　說

寡占과 集中의 弊害

—財閥은 지나친 銀行株買占 삼가야

資本과 經營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기업경영 風土아래서 財閥들이 銀行株式을 지나치게 많이 所有하는것은 無益하다고 봐야 한다.

財務部長官은 국회財務委에서『앞으로 은행民營化가 되더라도 은행주식을 寡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談合해서 은행경영을 농단하는것은 사후 監督을 통해 철저히 막겠다』고 말하였다.

이는 國會질의응답과정에서 정부의 은행민영화방침에 따라 은행주식이불하된으로因해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식 소유분포가 재벌계열로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데 대한 정부책임당국자로서의 所見피력 이었다.

부연해서 말하기를 시중은행을 불하한는것이 재벌의 금융지배라고는볼수없으며 몇개은행이 재벌의 영향아래 들어갔다고해서 금융횡포를 마음대로 할수는 없을것이라고도 했다.

요즘 국회에서 새삼스럽게 지나친 富의 財閥集中현상과 특히 재벌에의한『금융支配우려와 관련, 많은 자료가 나왔다.

예컨대 국내 10大財閥의 작년중 賣出額은 국민총생산(GNP)의 42·8%나되고 30大재벌의 그것까지를 합치면 GNP의 60%에 달한다는것이다. 물론 GNP는 부가가치개념이므로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賣出額을평면적으로 비교할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재벌계열에의 경제력집중도를 실감케하는바 없지 않았다.

그에보태 최근 시중은행 주식불하이후의 주식분포 실상은 한개 재벌이 1개은행총주식의 15%정도까지 매점하고 있는가 하면 2、3개은행에 걸쳐 각각10%이상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지나친 경우도 드러나 재벌에 의한 은행지배의 기우가 생길만도 하다고 보겠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眞價가 기업활동의 自由와 所有및 集中의 自由에 있음을 익히 알고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기업에 의한 獨寡占 횡포나 무제한적인 소유와 집중의 弊端을 最小化시키기 위하여 反獨占法체계를비롯한 각종법적규제로써 所有上限을정하고 集中을 배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렇듯『自由』와『制限』이란 兩極을 받아들이는까닭은 그어느쪽으로 치우쳐도 안된다는 경험의 교훈과 아울러 이를 相反되는 개념의調和가 구현돼야만 公的경제는 물론、私的경제면에서도 발전·번영을 구가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이 활동의 自由와 所有및 集中의자유를 누릴수있어야만 政府主導사업계획이나 官治現業에서 흔히 볼수있는 試行錯誤 浪費·非能率등을 제거할수 있다.

지금 우리企業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자유기업의 완성한 創意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의거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만큼, 民間主導를 저해하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떠한 규제조치도바람직하지는 못하다 하겠다.

기업存立과 경영收支를 전제로하는 投資·運營·管理에 걸쳐 기업활동을능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유기업을 보다더 창달해야 할 필요성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企業을『私物視』하는 기업관념이 일부에서 불식되지않고 있음은 차치하고, 자기자본비율이 18%수준에도 미달하는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스스로의 財務構造改善努力을 등한히한채 은행貸出로써 그 株式을 지나치게 사들이는 식의 수단방법으로 은행을 지배하려 든다면 이는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처럼 獨寡占禁止法체계나 기타 규제장치가 未洽한 상태에서 그런독점·지배를 허용하는 일은 삼가져야한다. 또 資本과經營이확연하게 분리되어『所有는하되 支配는 않는다』는 慣行이 하나의 전통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실정하에서는 熟考돼야 할 事案일 듯하다.

따라서 지나친 富의 財閥集中과 金融寡占을 제도적으로 막는 노력은 이 계제에 있어 마땅할 것이다.

喜壽맞은 大韓赤十字

—그人道와 博愛의빛 더욱 번지길

대한적십자사는 구한말인 1905년 10월27일 고종황제가 만국적십자운동의 광제박애(廣濟博愛)한는 뜻을 받아들여 창립된지 오늘로 77주년이 된다.

여기 새삼스럽게 일컫을 나위도 없이 적십자활동은 인도주의와 중립및 공정의 기본원칙을 받드는 비정치적·비종교적·범세계적 운동으로서 현재는 세계1백30개 회원국이 적십자의 이 순수한 원칙과 이념을 실천해 가고있다.

이들 회원국은 각기 소속된 국가의 인도적 욕구에 부응한 사업과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국가가 처한 그때마다의 상황과 消長을 함께하면서 적십자정신을 추호도 왜곡함이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77년이라고 하면 사람의 수명으로는 희수에 해당하는 고령이다. 삶에 대한 압복이 드높고 세상에 대한 경륜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는 연치이다.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 또한 국내외에서 그 지난바 이상과 쌓은바 실적、그리고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지향성으로 하여 널리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비록 우리적십자사가 구한말 대한제국시대에 비롯되어 미처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전에 日帝국주의의 손아귀로 전락한 기간도 있었고、광복후에는 한때 사회적 혼란에 휩싸이는가 하면 6·25당시엔 공산군남침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었으나 오늘에 이르도록 그 발전은 꾸준히 거듭되어 왔다. 이는 오로지 적십자의 숭고한 정신과 그 이상이 지니는 인도적인 보편성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도 6·25의 전화 속에서 수백만명 남하피난민들에 대한적십자사의 전시 보건활동、구호사업、부녀봉사활동과 그를 위한 회원및 헌신의 기틀을 저버릴수 없다.

더구나 70년대에 들어서 대한적십자사가 주도한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인도적『남북회담』제창은 이땅에서 27년간 단절된 남북간 대화의 문을 비로소 트게 했었다.

그뿐 아니라、오늘도 그대화로의 직 공산적화의 수단으로만 악용하려는 北赤의 악랄한 간계를 끈기있게 참고견디며 중단된 본회담의 재개를 위하여 성의와 인내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안팎으로부터의 높은 평가와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사업、안전사업、심인사업등 여러부문에 걸쳐서 일반의 불행이나 재해가 있을때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현장에서 고통을 나누려 했었다. 더 나아가 1975년5월 월남 이래 1천5백여명의 나라 잃은 월남피난민들을 수용 구호하여 제3국에서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했던 일은국제사회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렇게 나라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인도주의와 중립과 공정을 앞세운 적십자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오늘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모두가 세속적인 면에나 목전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이웃을 돕고 서로가 모자라는것을 나누어갖고자 하는 적십자인으로서 계속 봉사해온 한적요원들의 노고에서 온것이다. 동시에 그 활동을 지원해준 많은 회원들의 공통된 보람이라고도 할만하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지난날 대가족제도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또 도시화의 가속으로 농경사회에 기반을둔 지역사회 구성원 상호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마저 무산되어、사회적인 총화의 새로운 구심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십자운동이 표방하는 서로돕고 나누는 인도주의 이념과 실천이야말로 국민이 다같이 공명할수있는 정신적인 가치임에틀림없을것이다.

海外토픽

◇우유포장지 龍船　1천개의 우유포장용 판지로 만든 龍船 키프·온·드래건호。이 용선은 23일 美레드·우드시에서 열린 제7회 우유포장지 보트경주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레드우드(美 캘리포니아州) 24日 AP電送=聯合】

회생자친척에 혐의

★타일레놀藥禍事件수사진

7명의희생자를낸타일레놀 약화사건을 조사하고있는 수사관들은 회생자의 친척 한명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시카고 선·타임즈지가 25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약화사건이 발생하기전 회생자인 그의 친척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후 살의를 품었으며 수사진을 교란시키기 위해 몇몇 약국의 진열장에 있는타일레놀캡슐에 치명적인 청산칼리를 주입시켜 친척과 함께 여러명을 죽였을 공산이 큰것으로 수사관들은 믿고 있다는것。【시카고=AP】

이軍6백 精神異常

★레바논 侵攻작전이후에

최근의 레바논전투동안 약6백명의 이스라엘군인들이 정신이상으로 시달렸으며 그중 1백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고 이스라엘 신문들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들은 정신병전문군의관들에게 18일 공개된 통계자료를 인용、이들 정신이상군인들의 사상병사에대한 비율이 거의 4분의1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같은 비율은 지난73년 중동전당시보다 거의 2배나 증가한 것이며 세계의 평균비율보다도 2배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텔아비브=UPI】

치아에無害한 설탕

★英 회사 새開發、곧市販

영국의 한 설탕제조회사는 치아를 부식시키지않는 새로운 설탕을 개발했다고.

타임즈지 보도에따르면 테이트·앤드·라일社는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기생할수없는 인공설탕제조에 성공함으로써 이 설탕이 함유된 식품이나 과자류는 박테리아번식이나 충치를 일으키지않게 된다는것.

이회사의 인조설탕 이소멀티로스는 자당(蔗糖)을 자당효소박테리아가 갈락찬조류(蔗糖)형태의 찌꺼기으로 통과시켜 만들어지는데 이 설탕이 일반소비용으로 적합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현재의 자당가격보다는 2~10배 비싼가격으로 곧 시판된다.【런던=AP】

20만弗기부 取消

★사우디王子、면회거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자는 최근 뉴욕시에 20만달러를 희사하려다가 뉴욕시장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데 분개、이를 취소하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거금을 희사하기로 했다고 이 왕자의 대변인이 말했다.

모하마드·알·파시라는 이 왕자는 또 버지니아주의 한 해군병원에 10만달러、하버드대학에 15만달러의 장학금을 기증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뉴욕=UPI】

政局往來

◆뚜렷한國家觀갖고 교육했기때문

全斗煥대통령은 26일 낮 李承福기념관준공식에 참석한뒤 기념관옆 휴게실에서 江原道內각급기관장 이지역출신국회의원 遺族및주민대표 기념관건립관계자등 50여명과 오찬을같이하며 李군의반공정신을높이찬양.

全대통령은『우리나라에서도 몇번째안되는 이런 산골짜기에서 李군과같은 훌륭한 어린이가 나왔다는것은 그가다니던 학교의 교직자들이 뚜렷한 國家觀과 반공정신을 갖고 어린이들을 교육시켰기때문』이라면서『이는 교육만 잘하게되면 어린학생들도 思想무장을 이해할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사회일부에는 틀렸던것도 틀렸다고 말하지못하는 용기없는 사람들도 적지않은데 총칼의 위협속에서 어린학생이 자기의 신념을 얘기했다는것은 얼마나 용기있는일인가』고 反問하면서『이번 기념관건립을통해 교직자들도 과연 양심적이고 떳떳한 교육을 하고있는가를 省察할수있는 계기를 가져야할것』이라고강조.

全대통령은 오찬이 끝난뒤 李군이 다니던 東沙국민학교에 韓牛10마리를 기증하면서『어린이들의 畜産실습에 도움이되도록하고 나중에 增殖시켜 학생장학금과 선생님들의 후생복지등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平昌=尹國炳기자】

◆實名制와 進退를 같이할용의는

26일의 국회재무위 정책질의를벌인 여야의원 모두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을 추궁하는 가운데 특히 民正黨의 崔明憲의원이 實名거래제 전면 실시 유보를 주장하고 나서 注目.

崔의원은『實名制의 취지나 내용은 찬성하나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이해와 순응이 문제점이있어 저축열저하와 증권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이제 實名制는 재음미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면서 반대.

또 같은 논조를 취한 高在淸의원(民韓)은『7·3조치로 정부와 여당 국민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갈팡질팡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고 목청을 높인후『재무장관은 實名制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경우 이제도와 진퇴를 같이할 용의가 있는지 명백한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

朴完奎의원(民韓)은『재무장관은 6·28및 7·3조치 발표이후 국민과 의원들로부터 두들김을 당했지만 鐵을 두른듯 무표정했다』면서『지금까지 無所信 無論理 無要領등 3無답변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3有답변을해달라』고 요청.

李敏雨의원(民正)은『몸이 비대하면 건강에 해롭듯이 재벌이 비대해질때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도 위태롭다』면서『구태의연한 경제인의 의식개혁』을 주창.

이에대해 姜慶植재무장관은『은행이 上場업체이기때문에 기업이증권시장을통해 은행주식을 매입하는것은 파악할수없다』고 말하고『은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경우 이를 배격토록하는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으니 심의통과 시켜달라』고 호소했다.

"政府·국민·與黨 모두 갈팡질팡케하는 7·3조치 찬성하는자 누구인가"

◆도박실패후 緊縮 부르짖더니

30일의 豫決委는 정부의 赤字재정과 財閥에대한 특혜금융을 신랄히 추궁하는 야당의원들의 막바지질의와 긴축경제를 촉구하는 여당의원들의 질의로 뜨거운분위기.

郭正出의원(民正)은『70년대末경제관료들은 조금이나마 축적돼온민족자본을 송두리째 중화학공업에투자하는 도박을 해 실패하더니 뒤늦게 긴축경제를 부르짖었다』고 지적한후『인플레를 잡는것이 우리경제가 살길이라며 국민들에게 거국민적인 협조를 求해오던터에 韓銀직접償務額이 50%까지 상승하고있다』고 비난했다.

李英馥의원(民韓)은『마다할부채를 안고 정부지원에 의존해 오던 특정재벌기업들에게 은행주를 인수시키기 위해 은행대출을 해준 결과를 초래한것은「선택받은 특혜」조치가 아니냐』고 다그쳤고、曺德鉉의원(국민)은『81년도의 赤字재정이 80년도의 2배가 넘는 이유를 정부측은 설명할 자신이 있겠느냐』고 따지기도.

◆3役회담 得失놓고 장시간 論難

26일의 民韓黨당무회의에선 전날 있었던 3黨3役회담의「得失」을 놓고 한동안 論難.

먼저 林鍾基총무가 국회법개정과 地自制문제에서 靑信號가 엿보였다는 肯定論을 곁들여 회담결과를 보고하자 吳洪錫의원이 그모임이『청와대회담 後續조치를 위한 회담인지 분명히 밝히란』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

高在淸의원은『3役회담은 청와대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회담이 아니고 變質歪曲된 회담으로서 내용없이 극히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한것 같다』고 詰難.

辛相佑、金元基의원등은『후속조치를 위한 회담이라면 그에 관련된 얘기만해야될게 아니냐』며 정치자금문제는 거기에서 언급될게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한동안의 논란뒤에 柳致松총재는『우린 어디까지나 후속조치를위한 실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대화를 통해 우리黨이 주장하는내용을 관철시키도록 하자』고 완곡하게 설득.

◆政界인사들 故朴 대통령墓참배

故朴正熙대통령의 3周忌를 맞아 국립묘지의 故人墓所에는 遺族이외에 故人측근을 비롯한 新舊政界인사들이 다수 參拜.

25일에는 遺族과 金鍾泌씨내외가 참배한데이어 26일에는 상오 8시10분께 金正濂씨를 스타트로 丁一權 白斗鎭 李厚洛 李周一 金龍泰 金致烈 李道先 太完善 張坰淳 申稙秀 朴璟遠 申東寬 盧載鉉 徐相濂 林芳鉉 崔錫采씨등이 墓所를 다녀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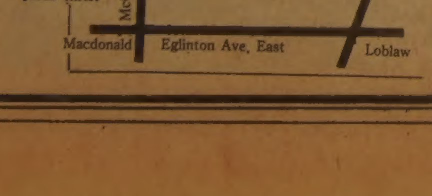
한편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黨간부들과 소속의원 中央委員및 사무처요원들은 작년에이어 이날 상오9시께 참배했다.

창립
스카보로교회

우리 서로의 뜻을 모아 예배장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여러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　★

임시집회장소 : 400 McCowan Rd.
아파트맨트 Conference Room (1층)
시　간 : 매 주일 오전 11시
담임목사 : 김 희 섭
연 락 처 : 김 정 국 ☎ 267-1962
김 희 섭 ☎ 921-8809



토론토한인배구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 협회회칙 제4장 10조 가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2년도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 합니다.

— 아　래 —

일시 : 1982년11월6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안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보고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
3. 기타사항

1982년 10월25일
토론토한인배구협회
회장 문 영 환

파독광산근로자적립금
——지급안내——

1963년부터 77년까지 독일광산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적립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양식에 의하여 82.12.31까지 한국외환은행 푸랑크푸르트지점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지급신청(양식)

성　명	(국문)	(영문)	
생년월일		여권번호	
내독일자		계약만료일자	
근무광산명			
본인현주소			
직업및 직장주소			
거래은행명및 주소		구좌번호	

본인의 적립금을 위 은행 구좌로 지급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2.　.　.　　성명:　　　서명:

거주지관할 아국공관영사 확인 또는 본인여권 성명, 생년월일 및 사진란 사본1매

한국외환은행 서독푸랑크푸르트지점장 귀하
신청할곳 : Korea Exchange Bank
Bockenheimer Land str.51-53
6000 Frankfurt, West-Germany (Tel: 0611-71290)

實業교육에 異常있다

올 工高生 취업률 47%뿐

農高는 지원未達까지

기술교육및 조기취업을 위해 설립한 전국의 공업고등학교 취업률이 최근들어 해마다 격감하는가 하면, 농업의 전문적인 영농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농업고등학교의 지원자도 점차 줄어들어 실업교육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고생들의 취업률은 지난78년 75·8%였던것이 해마다 떨어져 금년도의 경우 졸업생의 반도안되는 46·8%가 겨우 직장을 잡았을 뿐이다. 또 농고의 경우 지난 70년대말부터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에는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미달현상까지 빚고있다. 경쟁률은 지난 79년에는 1·4대1이던것이 80학년도 1·3대1, 81학년도 1·2대1, 82학년도는 1·1대1로 떨어졌다.

취업률은 공고생의 79년에 71·5%, 80년은 55·1%, 81년에 47·5%로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추세. 문교부는 해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육성을위해 막대한 예산을투입해왔는데 공고의경우 금년도에 학생들에게만 3억원의장학금을 지급하고 실험실습비로 41억 1천8백만원을 보조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떨어지거나 지원자가 격감추세에있는것은▲공고생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라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대학 진학을 위해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특히 농고의 경우 갈수록 심해지는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에따라중학교 졸업자들이 농촌을떠나 대도시인문계고등학교를지원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했다.

이 자료에의하면 또 공업고등학교도 농고와함께 지원율도 해마다 줄어드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78년도6만8천1백51명 정원에 13만7천3백12명이지원, 2·0대1의 경쟁률을보였으나 지난81년과 금년은 1·5대1로 경쟁률이 뚝떨어졌다.

전국에는 현재 99개교의 공업고등학교에 22만7천4백80명의 학생이재학하고있으며 농고수는 1백16개교에 5만6천28명이다.

◇26일 光州 무등경기장에서 막이오른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 【韓隆기자찍음】

23회 民俗경연開幕

【光州=李忠雨기자】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26일상오10시 光州에서 李振羲문공부장관, 金稔植전남도지사등 관계인사와 3만5천여 전남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유례없는 대풍을맞아 풍년제를겸해열린 올해민속의제전에는 전국 19개시도에서 1천4백여명이출전, 28일까지 技와藝를겨루게된다.

李문공부장관은 이날 치사를통해 『토박이 문화의 정수와 거기에 간직된 맛과 멋과 신바람을 시대적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새로 펼쳐나가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번경연대회중 25일과 26일 南道예술회관에서는「南道국악제」가 펼쳐졌고 27·28일엔 光州시립무용단의 무용공연이 이어지며 27일하오 7시 光州시민회관에서는 光州시립교향악단의 음악회가 열린다. 또 지난25일 개막된 미술작품전시회(한국美協光州지부 주최)는 이달말까지 南道예술회관에서 계속된다.

所得稅등 3억追徵 상습脫稅 사채업자

【大邱】大邱지방국세청은26일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조사해오던 사채업자劉在壽씨(53·大邱市南區大明1洞1643의35)에게 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大邱지방국세청에 따르면 劉씨는 지난77년부터 80년10월까지 4년동안 10여명에게 76차례에 걸쳐 모두 18억7천6백여만원의 사채를 놓고 이들로부터 받은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및방위세 2억2백여만원을 포탈한것을 비롯 지난80년6월 경북安東市泉里洞에 아파트를 건축, 판매하면서 재산이 없는 조카를 건축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 방위세 부가세등 8천9백85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그동안조사를받아왔다. 【聯合】

人蔘속성재배 성공 日北里大 조직배양

【東京=宋孝彬특파원】인삼을 유전공학에 의한 조직배양으로 속성재배하는데 성공했다고 일본의 기다사또(北里)대학 약학부가 26일 발표했다.

이 대학은 우수한 전기기구메이커인 니또(日東)전기공업과 공동개발로 10년동안 인삼을 속성으로 대량 재배할수있는 방법을 연구한끝에 3년생 한국인삼과 같은 인삼을 12주만에 재배하는데 성공했다는것.

心不全·심근경색症 병합 검찰、朴寬賢씨 死因발표

【光州】지난 12일 새벽2시15분께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한 朴寬賢씨(30)의 사인은 임상소견과 부검소견·약물반응검사 조직검사등 종합검사결과 기왕의울혈성심부전증과심근경색증의병합으로인한병사로밝혀졌다.

韓容求光州지검검사장은26일하오3시朴寬賢씨의사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朴씨는 전부터 울혈성심부전증을 앓아오다가 최근 심근경색증이 유발되면서 순환장애를일으켜사망했다고말했다.

검찰은 정확한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사망당일인 12일하오2시30분 光州지법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3일새벽0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1시간30분동안 전남대부속병원 부검실에서 光州지검 盧勝行부장검사 지휘아래 전남대부속병원 임상병리학과장 尹康燮부교수 동교실의 柳問容씨 임상의대부검의 朴天圭씨 의과 李瑛鉉씨·崔烋씨와 조대 과장趙承國씨 기독병원손창진병원교수등 7명의 공동 집도로 사체부검을 실시한결과 울혈성심부전증에의한 순환장애로 추정됐으며 이틀동안 2차적증상으로 울혈성간과 폐부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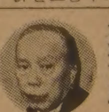
검찰은 이보다 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위해 각장기의 병리학적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심장 폐장 간장 위장 취장 뇌등 7개조직을 검사한결과 약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聯合】

道詵寺서 추모法會

26일상오11시 서울道峰區牛耳洞 道詵寺에서는 추모법회가열렸다.

朴玄愷주지스님과 일반신도 1천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道詵寺3층 강당에서열린 이날법회는 공양을시작으로 법문낭송과 분향, 昆祭등의순으로 1시간30분에 걸쳐 실시했다.

고려大 재단理事長 金相万씨 선임



학교법인高麗中央학원은 26일하오 이사회를 열고 李活전이사장의 별세로 공석중인 재단이사장에 東亞日報명예회장인 金相万씨(73·사진)를 선임, 문교부에 승인 요청했다.

金이사장은 37년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 71년 東亞日報사장, 76년 아세아신문재단 회장등을역임하고 지난77년부터현재까지東亞日報명예회장으로재직하고있다.

班常會하던 아파트에 強盜

貰살던 處女 피살

漢江邊서 피묻은 장갑·점퍼 발견

관계 깊었던 5名 집중 수사

◇숨진 朴聖淑양

25일하오 7시40분께 반상회가 열리고 있던 서울 江南區驛三洞 한신5차아파트 116동807호 黃玉蓮씨(43·여) 집에 25세가량의 괴한이 침입, 전년밤에 세든 朴聖淑양(2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범인은 이날 반상회때문에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반상회주민을 가장, 버젓이 침입해 현관왼쪽에 있는 건넌방으로 들어가 1시간동안 범행을 한뒤 반상회 참석자들이 보는가운데 현관문을 통해 유유히 도망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26일상오 9시30분께 현장에서 2백여m 떨어진 漢江변 모래사장에서 범인이 버리고 달아난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면장갑, 점퍼등을 발견하는 한편 숨진 朴양과 평소 관계가 깊었던 李모씨(24·경기富川市)등 5명의 신원을 파악, 이들의 관련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다.

숨진朴양의 동생 明淑양(20·S大1년)에 의하면 이날하오 7시35분께 언니가 갑자기 『빵 좀 사먹고싶다』고 말해 약50m 떨어진 뉴코아 슈퍼마킷 빵판매대에 가서 빵을 사들고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안으로 잠겨있어 문을 두드리니 25세가량의 괴한이 문을 열어주면서 칼로 위협, 明淑양을 방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도로 잠갔다는것.

범인은 明淑양에게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뒤 녹음기줄로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틀어막은뒤 방안을 뒤져 3돈쭝 금반지와 5돈쭝금팔찌를 털어 달아났다.

이날 黃씨아파트에는 하오 7시40분께부터 주민20여명이 모이기 시작, 하오8시30분께 반상회가 끝나고 알루미늄새시 설치문제로 黃씨등 5명의 주부가 응접실에 남아 있었으나 사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범인이 나간 잠시후 明淑양이 끈을 풀고 나와 인터폰을 들고 『강도야』하고 소리쳐 강도살인사건인줄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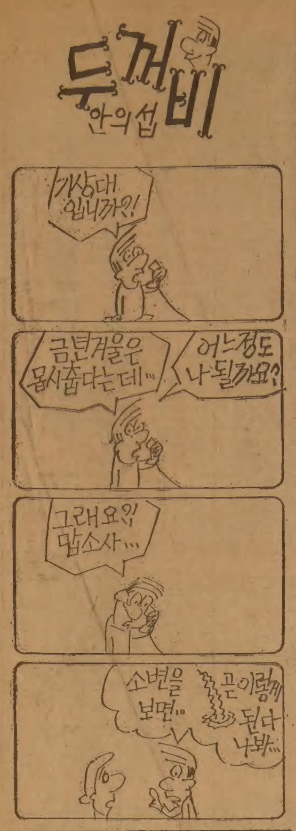
경비원 安韶淳씨(35)에 의하면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은후 계단으로 25세가량의청년이 내려오자 팔을 붙잡고 『당신 807호에서 내려오는것 아니냐』고 묻는 순간 범인은 손을 뿌리치고 맞은편 강변도로쪽 철책을 넘어 달아났다는것.

숨진 朴양은 팔을 뒤로 묶인채 침대위에 바로 누워 왼쪽 가슴 2군데를 예리한 흉기로 찔려 상체가 피투성이가된채 이불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숨진 朴양이 일본인 중국인 재일교포등 외국관광객을 상대하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고 지난 15일께도 20대남자 2명이 찾아오는등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집주인 黃씨의 진술에 따라 일단 면식범에 의한 치정살인사건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인의 유류품과 朴양의 방침대·방바닥등에서 채취한 체모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숨진 朴양은 경남咸陽A여고 1년을 중퇴한뒤 간호보조학교를 수료, 大邱D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1월 상경했는데 黃씨집에는 지난8월28일 친구인 柳모양(25)과 동생明淑양등 3명이 보증금 2백만원 월세 6만원을 내고 문간방 2개에 세들어 살아왔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892
H245-3539

蔡暎洙대리 手配

고객預金 橫領사건

◇수배된 蔡暎洙씨

속보=중소기업은행 龍山지점 蔡暎洙대리의 거액예금사취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龍山경찰서는 26일 蔡씨를 사기혐의로 공개사진 수배하는 한편 피해자 李匡淳씨(28·서울江西區木洞)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있다.

서울中區明洞 Y실업사원인 李씨는 26일 경찰에서 蔡대리로부터 자기은행에 거래를 해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거래를 해오다 지난 16일 상오10시와 하오1시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온라인 구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은행에서 5천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했다.

李씨는 또 蔡대리가 잠적한 뒤에도 자신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5천만원 전액을 입금시켜 주겠다며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달아난 蔡대리가 계획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여 거액을 예금시키게한뒤 자신의 직책을 이용,무통장 입금증을 써주고 돈을 사취한 것으로 보고있다.

◇비둘기의 不敬을 탓할 것인가 南山에 있는 白凡 金九선생의 동상이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마구 더럽혀진데다 동상머리에까지 날아앉은 비둘기로 보는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다. 【지난22일 南山공원에서 鄭在允기자찍음】

先烈銅像 새떼 극성

분비물 덕지덕지…「白凡」가장 심해

서울南山공원에있는 독립운동의 거성 白凡金九선생의 동상에 각종조류의 분비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대수롭지않은「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그 어느때보다도 일본을 의식해야하는 나라형편을 생각하면 일제의침략과 탄압에맞서 일생을싸워온 白凡을 기리는후손의 마음가짐이 소홀한게아니냐는 반성을 낳는다.

白凡의 동상뿐아니라 애국지사와 명현들의 높은뜻을기리기위해 설립된 동상이「예산부족」이나 게으른 관리로 비둘기등 각종 조류에의해더럽혀지고 주변청소마저 소홀하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않는다.

서울시내에는 金九선생동상등 南山공원에만도 모두18기의 동상및 기념비가 있으며 奬忠공원과 파고다공원등지에도 지사와 명현들의 동상이 건립돼있는데 보호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은게 현재의 실정.

南山어린이놀이터에 세워져있는 白凡동상은 근처에서 서식하는 비둘기들이 자주날아들어 동상머리와팔등에 마구 배설물을 뿌리는가하면 머리에 동그라니 앉기도해 자주 보는이를 민망하게하고있다.

金九선생동상외에도 安重根의사등 동상을 관리하는南山공원관리소는 1개월에 1번꼴로 물세척을 하고있으나 金九선생동상은 높이가 14m나돼 해충구제차량을 이용, 청소를하더라도 머리부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청소원31명이 동상등 청소작업을 하고있으나 동상을 전담하는직원은 없으며 시설관리비 1천6백만원중 동상관리비는 책정되지 않고 있는실정.

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외국의 예처럼 약전(弱電)을 흘리고▲화학약품처리를 하거나▲끈끈이 막을 설치하는등 새가 앉지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류를흘리는방식은 전력손실이 많은데다 동상중에는 전기가 통하지않는 재료로 만들어진것도많아 기술상 불가능한어려움이있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朴珍列기자】

故朴대통령 3周忌 각계人士 墓所참배

10·26사건에 의한 故朴正熙대통령의 3周忌를맞아 서울銅雀洞 국립묘지 故人묘소에는 朴槿惠·槿英·志晩씨등 故人의 유족들을 비롯, 前공화당간부들과 陸英修여사 추모사업회 (회장 朴順天)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 權世卿) 관계자들이 참배, 분향하며 故人의 명복을빌었다.

이날 全斗煥대통령과 金相浹국무총리등을 위시한 국무위원일동은 묘소에 조화를보냈다.

유족들은 이날하오6시 서울城北區城北洞자택에서忌祭祀를 지냈다.

시체3具발견 제1해동호 沈沒해상서

【東草】지난 24일 동해울릉도 동북방80마일해역에서 침몰한 제1동해호(92톤)의 실종어부로 보이는 남자의사체 3구가 26일 사고해역에서 발견됐다.

동해어로본부가 26일 상오11시40분께 항공수색대를 투입해 시체2구를 발견, 인양한데이어 상오10시45분께 東草항소속 오징어잡이배 제7경풍호(99톤)가 이해역에서다시시체1구를인양한것.

침몰한 제1동해호는 지난24일하오2시께 마지막 교신을 보내고 통신이 두절됐는데 사고해역에는 파고7~8m의 높은 파도와 직경8㎜의 우박까지 겹쳐 선원36명전원이 실종됐으며 모두생존가능성이 희박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첫 출항했다가 실종된 이배는 선령20년의 노후선박으로 지난7월 전의수산측이 개인으로부터 인수했으며 수협경남지부에 선원 공제보험과 저인망조합에 2천4백만원의 선체보험에 가입돼있다.

5行뉴스

◆가정집에불 7순노모 숨져

【大邱】25일하오 7시40분께 경북 高靈郡星山面朴谷2洞517 이우석씨(50)집에서 불이나 이씨의 어머니 서철금씨(73)가 불에타 숨지고 목조기와집한채와 컬러TV등을 태워 2백30만원의 피해를 냈다. 【聯合】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그때 그 醫師

朴대통령 死亡확인한 金秉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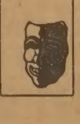
얼굴가려 下腹部보고 "주인공" 직감

격변기를 살면서 사람들은 『요즘 1년이 보통때의 10년간다』는 말을 자주 주고 받는다.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 눈이 빙빙도는 변화의 템포를 따라잡다보면 인간의 의식이 그만큼 손마된다는 뜻이었을까.

보사부차관 金秉洙씨(48·사진)에게 『10월26일』은 평생을통해 잊을수 없는 날이다. 그러나 그는 『이나면 예사일』처럼 잊어버렸다가 3주년일을 귀띔받고 무릎을쳤다.

『의료보험 1원화』문제로 식사하는일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쫓기던 26일 상오.

그는 꼭 3년전 26일 국군서울지구병원장으로 故 朴正熙대통령피격



직후 직접 검시를 맡아 사망을 확인했던 사람.

당시 그가 겪은 시련은 퇴근후집으로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병원당직군의관이 전화를 걸어 『대통령비서실장이 웬 환자를 모셔왔는데 VIP인것같고 중태인것같으니 원장께서 직접 나와주셔야겠다』는 내용이었다.

『중환자』의 몸은 볼수 없도록 천으로 싸여있었고 겨우 귀,머리,턱등 부분부분만을 관찰하도록 허용되었으나 朴正熙대통령과 의사로서 오랜 유대를 가진 그는 시신의 하복부를 관찰하면서 이시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직감했다.

그 엄청난 순간에 그는 어떠한앞날이 오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분에 따른 正道를 걷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한다.

격동의 순간은 어느덧 지나고 제5공화국이 열리면서 그는 환경청차장을 거쳐 보사부차관에 이르는 공직의 길을 역시 『正道』로 걸어왔다.

그동안의 3년이 수십년이 지난것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점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심정인 그는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건설해낸 조국의 저력에 감사할뿐』이라고 말한다.

보사부내의 평판을 모아보면 그는 매우 직선적이고, 엄하고, 또소탈한 성품인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의 부하국장들중에는 그의 서울의대 선배도 있다.

사석에서는 선배에 대한 예우가 깍듯하지만 결재과정에서는 역시正道다.

한시대의 마감을 증언해냈다. 지금 그는 『복지사회』로 가는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개보험시대를 열고자 하는 산파역의 한사람이다.

의료보험일원화가 복지국가로의 正道일진대 그는 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金薰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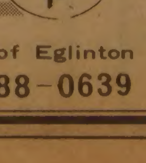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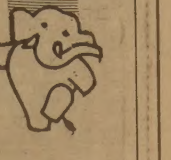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앞으로 23일… 한국팀 戰力診斷



「영원한 前進」을 지향하는 제9회 印度아시안 게임이 11월19일 개막된다。한국은 이번대회서 목표로 내세운 종합3위를 실현할수 있을까。20개종목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은 태릉선수촌서 전력강화훈련에 피치를 올리고있다。종목별로입상가능성등을 전망해본다。【편집자註】

아시안게임서 육상은 금메달이 40개나 걸려있는 황금나무다。한국이 몇개의 메달을 따낼수있을지 미지수이다。북한과 숙명의 대결을 벌여야하는 한국으로서는 육상에서 메달 획득여부가판도를 좌우할수있는변수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육상

金메달 40개의 「黃金나무」 優勝장담種目은 미지수

트랙의 張在根·牟明姬·金福柱에 기대

현재 상황으로 육상에서는 금메달을 장담할수있는 종목이 떠오르지않고있다。40개의 메달을 향해 주사위를 던지는것이나 다름없다。지난 23일 泰陵에서열린 자체 평가기록회결과는 이런 불안을 가중시켜주고 있다。

육상에서 가장 기대를걸고있는 선수는 남녀 단거리의 張在根과 牟明姬,중거리의 金福柱다。張在根의 1백m 기록은 10초4、牟明姬의 기록은 11초7。단거리기록은 자신의 최고기록보다도 경기당일의 컨디션이 승부를 좌우하는 요인이므로 張在根과 牟明姬는 자신의 실력만 최대한 발휘하면 金이나 銀을 바라볼수있다。

牟明姬는 평가회서 11초98을 마크했는데 아시안게임기록 11초91에 바짝접근한 기록을 보였다。그러나 張在根은 11초38로 부진。자신의 페이스를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가 문제점이다。대만국제육상대회서 11초56의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朴美善과 田貞植 金貞淑은 계주멤버로 활약을 기대하고있다。

육상선수는 남자 11명、여자 10명이 출전한다。현재 나타난 기록으로 메달을기대할수있는 선수는 남자8백m의 金福柱、金의 한국기록 1분48초47은 아시안게임 기록 1분50초21을능가하며 아시아 최고기록 1분45초77에 2초70 뒤지고있다。대표단의 韓昇哲감독은『張在根 牟明姬와 함께 金福柱에 거는 기대가 크다。金은 자신의 페이스만 유지해도 銀메달은 가능하다。金의 기록을 1분45초대로만 끌어올리면 金메달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있다。

평가회서 제 페이스를 유지한 선수는 여자1천5백m의 金順花。金順花의 최고기록은 4분25초19인데 평가회서 4분27초23을 마크했다。이 종목 아시안게임 기록은 4분27초11이며 아시아 최고기록은 4분14초18。여자중거리 부문은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아선수권대회서 북한 선수들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종목이다。따라서 이 종목서 金順花에 거는 기대는 크다。

朴元根이 갖고있는 5천m 최고기록은 13분57초33。5천m서 메달을 따려면 13분대에 뛸수있는 기본 실력을 갖추어야한다。朴元根은 평가회서 14분2초53을 마크、불안감을 주지만 집단 레이스를 벌이면 더좋은 기록도 가능하다。마라톤의 金鍾允은 메달에 대한 기대 보다도 한국마라톤이 아시아 무대서 어떤 기록을 나타내고 얼마만한 위치를 차지하느냐하는 시금석을 제시하게될것이다。

코칭 스태프가 트랙부문서 銅메달이나마 기대를 거는 종목은 남녀 4백m계주。남자는 金鍾鎰 張在根 徐末九 崔容準등으로 짜여지게 되는데 日本 泰國과 함께 일전을 벌일 계획이다。

도약이나 필드 부문서는 메달을 장담할수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金鍾鎰이 7m98을 뛰어주는것이 문제인데 그는 이 기록을 세운후 한번도 접근하지 못하고있다。金美淑은 금년 처음 6m 벽을 돌파했는데 6m10㎝대는 뛰어야 銅메달권。여자투원반의 李相役(4m76)은 50m대를 넘어야、남자투원반의 洪淳模(51m80)는 54m、남자투창의 梁殷寧(74m48)은 80m를 넘어서야 銅메달을 바라볼수있다。

아시안 게임 초창기 한국은 徐永珠(멀리 뛰기)、韓昇哲(5천m) 李昌薰(마라톤) 등이 금메달을 따낸후 74년、78년 白玉子가 투포환서 연속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들의 뒤를이을선수가 이번 印度에서나올지 주목된다。

◇육상한국선수단

▲코치=韓昇哲 朴承培 全漢古 尹卓寧 黃正大▲남자=張在根 徐末九 崔容準 金相文 金福柱 金鍾鎰 梁殷寧 洪淳模 金鍾允 朴元根 金養坤 ▲여자=牟明姬 朴美善 田貞植 金順花 金美淑 田玉金 田京美 金希宣 李英淑 李相役

【閔炳宰기자】

브라질·美·加 유치3巴戰

86월드컵蹴球、콜롬비아主催포기

【보고타(콜롬비아)AP聯合】콜롬비아정부가 오는 86년의 월드컵축구대회 주최계획을 포기한다고 25일발표、브라질·美國·캐나다가 86년 월드컵본선주최권을 놓고 3파전을 벌일것으로보인다。

콜롬비아대통령실대변인은 이날 콜롬비아가 월드컵대회 주최권을 포기할것이라고 밝혔다。국제축구연맹(FIFA)는 지난 74년콜롬비아의 86년 월드컵개최를 승인했었다。콜롬비아정부는어려운경제사정으로 세계축구의 제전인 월드컵대회를 제대로 치르기위한 통신및 경기장시설등 제반 준비를 해낼수없으며 시간도 촉박하다고 판단 주최포기를 결정했다。

르네·쿠르트 FIFA대변인은 이날 FIFA가 86년대회주최희망국들의 신청을 접수할것이라고 밝혔으며 브라질 美國 캐나다가 대회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黑白이 조화된 패션쇼 파리의 레·파피용콜렉션에서 19일 선보인 나비가 자수되어있는 넓은 저지와 공단으로 만들어진 여성용 카본 링제리로 두모델이 입어 보이고있다。【파리19일AP聯合=聯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7>

브레즈네프

얼음같이 찬눈에 表情없는 얼굴

組織의 명수… 蘇의 세계制覇시도한 인물

◇73년 샌클라멘토 별장의 美·蘇정상회담에서 닉슨과 담소하고있는 브레즈네프。브레즈네프는 지도자간의 친분이 국가간의 우호에 중요하다고 말하곤했다。

1957년 모스크바를 방문、흐루시초프와 부엌논쟁을 벌이고 있을때 군중을 밀어제치고 내곁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엷핏 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게 됐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토론을 열심히 경청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딱 한번 반응을 보여주었을 뿐이다。흐루시초프가 『우리 두나라는 역시 트랙이요』하고 고함을 질렀을 때다。그는 고개를 갑숙이 끄덕끄덕했다。

그 때 이후로 한동안 그 사람을 나는 두번 다시 생각해 본 일은 없으나 나중에 그가 바로 레오니드·브레즈네프임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13년이 지나 나는 그와 다시 相面을 하게 된 것이다。이때는 물론 세계의 두 초강대국 지도자들로서 정상회담장에서 대면을 했다。

1959년 흐루시초프를 처음만났던 크렘린의 똑같은 방에서 브레즈네프는 나를 맞았다。악수할때의 태도가 매우 진지했다。

얼음같이 찬 파란눈을 가진 브레즈네프의 네모나고 넓적한 얼굴은 미소지을때를 제외하면 도대체 표정이 없었다。그의 미소는 破顔이었고 다소경계하는듯한 웃음이었다。

흐루시초프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방 한쪽편의 긴 회의탁자에 나더러 앉으라고 손짓을했다。

우리가 마주앉게 되자 그는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불만부터 말하기 시작했다。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것에 지나지않았다。

이렇게 형식적인 언급을 끝낸 브레즈네프의 태도는 뚜렷이 느낄만큼 온화해졌다。

그는 2차대전시 루스벨트와 스탈린이 그랬던것처럼 우리 둘사이의 개인적 친분을 두텁게 해두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는『연합군 지도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검토해보면 실무자들 사이의 견해차이는 가끔 정상들의 조정에 의해 극복됐음을 알수있다』고 대답하고『내가 서기장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도 바로 그런關係의 것이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 즐거운 표정으로『그렇게되면 정말 기쁠일 밖에요。나로서는 그럴용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읍니다』라고 말했다。

내가『모든 결정을 관료들에게 내맡겨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을 것이오』라고 말하자『그들은 우리를 서류속에 파묻어 버릴것이오』라고 대답하고 진심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찰싹 때렸다。

흐루시초프와 첫 대면했을때와는 아주 딴판으로 우리는 이렇게 짧지만 즐겁고 희망찬 첫相面을 마쳤다。

브레즈네프와 나는 모두 3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는 소련에서 4번째로 등장한 절대권력자다。우크라이나의 노동자빈민가에서 출생한 브레즈네프는 스탈린의 숙청시절 한참 커나가는 공산당 청년관리였다。그리고 흐루시초프의 집권시절에는 그의 심복참모였다。

그는 理論家라기보다는 전략가(技術人)였고 組織에 능한사람이었다。그렇지만 그는 소련의 세계재패를 처음시도、그것을 끈질기게 추구한 냉혹하고헌신적인인물이다。

브레즈네프와 흐루시초프는 매우 흥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흐루시초프가 그저 아무나 입는 수수한 옷차림의 셔츠를 입고 옷도 제대로 맞지 않는 것을 착용하는데 비해 브레즈네프는 프랑스제 셔츠에 금으로 만든 소매단추를 착용、맵시있게 차려 입은 비단양복과 잘어울리도록 신경을쓰는 인물이었다。흐루시초프가 항상 리무진 앞좌석에 운전사와 나란히 타기를 좋아하는데 비해 브레즈네프는 뒷자석으로 씌운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운전사가 어디로 차를 몰든 까딱도 하지않는다。

같은 취미를 갖고서도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다 즐겼던 사냥을 갖고 말해보자。

흐루시초프는 오리사냥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좋아했다。배를타고 뱃전에 조용히 부딪치는 물소리를 들으며 사냥하는 것에서 부터 오리떼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것을 쏘는 사냥에 이르기 까지。

브레즈네프는 자신이 멧돼지사냥을 좋아한다고 말했었다。그러나그의사냥법은 흐루시초프가 보여준 스포츠맨쉽을 결여하고있다。브레즈네프는 옥수수 가루와 같은 먹이를 깔아 산돼지들이 일정 지역으로 기어들도록 유인한후 자신의 시골집 베란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망원경달린 총으로 쏘아 넘어 뜨린다。

세계 첫 노동자국가의 지도자이면서도 브레즈네프는 자신의 국가가 만드는 차종에서 가장 멋진것을 모아왔다。

그가 1973년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캠프데이비드에 왔을때 나는 그의 방문을 기념해서 暗靑色 링컨·콘티넨탈을 선물했다。

브레즈네프는 링컨·콘티넨탈을 그 즉시 운전해보겠다고 고집、운전석에 올라 타면서 내게 타도록 몸짓을 보냈다。그는 시동을 걸고 캠프데이비드 별장 주위를 도는길을 차츰 속력을 내어 돌아나갔다。

◇중절모를쓴 외투차림으로 거수경례를하고 있는 브레즈네프。그는 공산국가의 최고지도자이면서도 자본주의의 사치를 헤프게즐기는 양면성을 지녔다。

資本主義산물 고급승용차 수집狂

브레즈네프는 방해물을 깨끗이 제거한 모스크바의 VIP(要人)용 차선에서 드라이브를 해왔었다。만약 소련의 비밀경찰이나 해군지프가 혹시 그 1차선 도로에 불쑥 뛰어 들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생각해보는것조차 나는 싫다。

도로의 한 지점에 이르자『천천히/ 위험한 커브길』이라는 푯말이 보였다。그것은 매우 급한 경사의 언덕길이기도 했다。골프수레를 몰고 간다해도 브레이크를 사용치 않으면 길을 벗어나버리고말 커브를 브레즈네프는 시속 80㎞ 급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말했지만 도대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고갯길 밑에 이르러서야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찍-찍 비명을질렀다。

운전이 끝나고 그는『매우 좋은차군요。路面에 아주 잘 받는군요』라고 말했다。『아주 훌륭한 드라이버요。나라면 그같은 속도로 커브를 돌수 없었을거요』라고 대꾸했다。나는 마음속으로 「외교란 결코 쉽지않은 기술」이라는 생각을 했다。

브레즈네프는 멋진 생활을즐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요트를타고 가장좋은 차를 몰며 미인들과 어울리기를 즐기는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의 첫 회담을 위해 브레즈네프가 묵고있던 별장에 찾아갔을때 마침 아주 매력있고 아주 화려한 모습의 젊은 여자가 몸을나서려던 참이었다。브레즈네프의 통역이 브레즈네프서기장의 여자마사지사라고 소개해주었다。

악수를 나누게 됐는데 몸에서 향수냄새가 났다。그것은 프랑스향수 중에서도 가장 좋은것、아내 패티가 즐겨 사용하는 향수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51>

안개속의 집 ⑱

경아의 얘기가 귀찮이 되어 그때 일을 소급해보면 새롭게 잡히는 게 그뿐이 아니었다。

그때 보일러공과 단둘이 지하실을 돌아나와서 큰일 날뻔했다고 마치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느끼던 실은 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었을까? 위기를 모면한 것같은 안도감은 실은 위기를 놓친 아쉬움이 아니었을까?

차를 다 마시고난 보일러공은 수지가 깜짝 놀라게 작은 수고비를 요구했다。

저렇게 욕심이 없으니까 가난을 못면하지。아냐 딴 속셈이 있을지도 몰라。아니나 다를까 그가 미적미적 벼르다가 말했다。

「난방을 제대로 하시려면 한번 큰돈들여야겠는데쇼」

말씨뿐아니라 태도도 비굴해졌다。

「큰 고장은 없다고했잖아요?」

「어디 고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같아서요。중앙난방식으로 일원화하는게 기름값도 적게들고 열손실도 덜할텐데요」

「그건 알고있어요。2층은 나중에 증축한 거라 그렇게 따로따로 되고 만거예요。그래도 버너랑 다 외제로 최고급으로 쓴줄 아는데요」

「아직 버너는 다 외제죠。그렇지만 단열재는요。몇년 사이에 기막히게 좋은 신자재가 많이 나왔으니까 중앙난방으로 고치시려면 벽이랑、천장、창문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게 좋을거예요。집이 덥더우면 난방만 탓하는데 데워진 열을 간수 잘하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아직 한다곤 안했어요」

「기름값이 절약되는 걸로 공사비는 곧 빠질텐데…」

그가 아쉬운듯 말하면서 나중에라도 의향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내놓고 일어섰다。

수지는 유일환이란 그의 이름위에 붙은 기사주임이란 직함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웃기네。주임 좋아하네」

그러나 그를 현관에서 배웅하면서 수지는 또한번 가슴속이 편안치못한 조바심을 느꼈다。

그는 잔디밭사이의 디딤돌을 성큼성큼 걸어나가다가 문득 잔디를 밟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감은 잎 떨어진지 오래됐고、감도 다 따고 장대가 미처 미치지않은 맨위 꼭대기에만 몇개가 아직 남아서 연시가 돼가고있었다。그가 그걸 우러렀다。따먹고 싶은걸까? 그러나 그는 아무 짓도 안하고 쳐다보다가 다시 휘적휘적 걸어나갔다。그의 전장한체격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보기 좋았다。

그때 수지는 가슴이 옥죄는 것처럼 답답하고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같은 경미한 두통을 느꼈었다。

그뿐이었고 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일이었다。늘 접촉하던 부류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때 느끼는 이질감에 지나지않을수도 있었다。설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라고해도 사노라면 심심찮게 있을수있는 그러나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있는 덧없는 감정의 유희에 지나지않았다。

경아의 귀뜸이 아니었더라면 그일을 다시 생각하는 일은 없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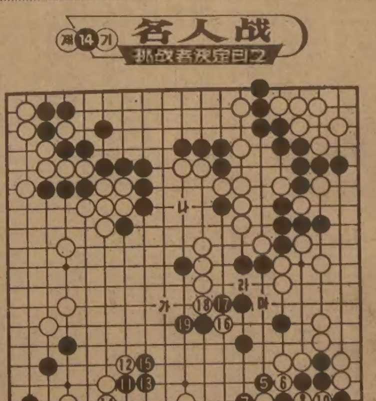
경아의 뜻하지않은 고백으로 눈을 빛내고 희희덕대며、은근히 샘까지 내고있는 좌중의 관심을 다시 바자전으로 돌이키기가 수지는 열없고 귀찮았다。그녀는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같은 감미로운 미열을 느꼈다。

第14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7譜 105~120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張秀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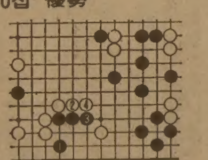
盧『가운데 白대마를 꽉잡을 요량이시지?』張『천만의말씀』본보의과정에서도 같은뜻의 대화가 몇번인가 되풀이됐다。

특히 黑5이하9로 귀쪽을 커다랗게 잡았을때는『이거 엉망진창』『대신 가운데를 잡게됐잖아』하고 말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사실 黑으로서 중앙白을 잡거나 어디가서「횡재」라도 해야만 귀의손해를 보상할수있다。

그러나 중앙白은 좀체 잡힐것 같지가 않다。가령 黑「가」로 포위해 보았자 白「나」면 완생이다。이리하여 다시금 준비공작으로 하변을 黑11로 붙여본것이다。白12、14가 전체 형세를 감안한 최강의 반격이다。黑「다」이「다」로 차단하더라도 참고도처럼 白2、4로 죽죽밀어붙이면 실리면에서 월등하여 그대로 승리를 굳히게 된다。黑15때 盧7단은 白16、18로 중앙「마」이하로 죄는수를 본것이다。白「라」을 일단 안정권에 넘었다。白20으로 건너간시점에서 黑은 20집가량부족하다。자、어떻게 이격차를 좁힐것인가。【一凡】

白 20집 優勢



"財閥의 은행經營참여 막겠다"

―政府、어제 國會常委서 답변

"大卒정원制는 學力만 저하" 질의

"株·社債、實名制제외 안해" 답변

◇會同한 3黨3役　國會各常委가 정책질의로 한창바쁜가운데 25일하오 3黨3役들이 青瓦臺영수회담의 後續조치등 당면한 國政현안들을 논의하기위해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會同했다。사진은 회담에들어가기직전 나란히선 3黨3役들。ⓐ로부터 李鍾贊民正총무, 陳懿鍾정책위의장, 柳漢烈民韓사무총장, 權翊鉉民正사무총장, 申詰均 국민사무총장, 林鍾基 民韓총무, 趙一濟 국민정책위의장, 金鉉圭 民韓정책심의회의장。

국회는 25일 法司·外務·國防위를 제외한 10개常委를열고 소관부처의 업무현황을보고받고 정책질의를계속했다。국회는 이날또 豫決委를열어 81년도 결산안과예비비支出案을 심의했다。★국회錄音3면

財務委 金鍾基(民正) 李洙鍾(議政) 李聖秀(국민) 金文元의원(民韓)등은 ▲財閥의 은행경영참여에따른 문제점 ▲7·3조치및 稅制개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구상 ▲국債상환 계획과 전망 ▲근로자 稅부담 輕減대책등에대해 물었다。

특히 李洙鍾의원은『은행株매입을 위한 財閥등에대한 巨額貸出및 재벌의 은행대출총액을 밝혀라』고 요구한후『기업주의 有限책임에 대한 특별법제정과 惡德기업주의 재산還收策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金文元 李聖秀의원등은 재벌의 경제集中度심화를 우려하면서『은행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라』고 따졌고 金鍾基의원은『정부가 은행민영화와 短資회사 설립등을 임의로 처리한후 事後에 법을 制·改正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 의원들은『국민계층간의 違和感만 조성하는 은행민영화를 서둔 이유를 밝혀라』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姜慶植재무장관은『앞으로 은행民營化가 되더라도 은행주식을 專占하고 있는 대기업이 談合해 은행경영을 左之右之하는것은 사후 감독을통해 철저히막겠다』고 말하고『따라서 대기업은 은행의 株主權만 행사할뿐 경영에는 참여치못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法人稅率을 인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면서『이번에 법인세율을 인하한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姜장관은『株式과 會社債에 實名制 적용을 제외하는것은 생각조차 해보지않았다』고 밝히고『年소득이 1백억이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81년말 현재 7백47명』이라고 말했다。

文公委 沈相宇 李大淳 朴源卓 具龍鉉(이상 民正) 金泰洙 林在正 金秉烈(이상 民韓) 朴在旭의원(국민)등은 ▲高校平準化의 문제점 ▲大學卒業定員制 ▲除籍대학생의 復校조치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沈相宇의원은『高校平準化는 學歷의 下向평준화이니라 장기경쟁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억압함으로써 青少年의식의 劃一化를 가져올우려가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하고『대학졸업정원제는 원과 교수들의 實的저하와이로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奎浩문교장관은 답변에서『고교평준화문제는 11월중 그간의 문제점개선책등을 총망라한 白書를 발표할계획이며 국사교과서 전면개편작업은 연말까지 끝내 내년 새학기부터 개편된교과서로 가르치도록하겠다』고말했다。

그는『최근문교부조사결과 졸업정원제 실시로인한대학재학생들의 불안요소는 거의사라졌다』고 말하고『문교부가 전국대학을 상대로 2학년재학생들의 제적률 조사결과 평균 31%가 이미 탈락했고 공부를 많이하는 대학일수록 탈락률이 높아 西江大의 경우 48%까지 탈락했다』고 밝혔다。

政治議案처리 논의

3黨3役회담「代表회담」후속조치도

民正 民韓 국민등 3당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들은 25일오후4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갖고 青瓦臺의 정당대표회담의 후속조치와 政治議案의처리등 앞으로의 국회운영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民韓등 야당측에서는 지난6월16일 青瓦臺에서 있은 정당대표회담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회의등의 조속한구성을 요구하고 국회법과、선거법、정치활동 被규제자 解禁、地方自治制의실시등 각종 政治議案을 관계常委에 上程、심의에 착수할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새해 예산안의 심의등 앞으로의 국회운영대책과 秋穀수매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한편 정당운영비의 조달을위해 中央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寄託金제도의 活用방안도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閣議、秋穀수매값 7%引上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를열고 금년도 秋穀收買가격을 작년對比 7%인상하고 수매량은 7백만석으로 책정키로했다。

정부는 금년도 秋穀수매가격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社會漫評

즐거운소식은 하나도없고…

蘇、對韓 관계개선 추진

日紙보도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소련은 중·소화해무드가정착해가는 것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신문들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지난11일 소련관영 타스통신기자의 訪韓、18일 소련문화성 포포프 문화재보존국장 訪韓등 소련 정부관계자및 언론인들의 訪韓을 지적, 소련이 對중공 정책뿐 아니라 對한반도정책을 크게 전환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있다。

24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소련외교、아시아에서 전화조짐」이란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소련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을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한국과 적극적인 접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마이니찌(每日)신문도 이날 포포프국장의 訪韓이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특히 그가 한국방문 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주목했다。

아사히 신문은 포포프국장의 訪韓은 소련이 지금까지의 對북한 일변도 정책을「한반도외교」로 폭을 넓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열릴 88년 서울올림픽등 각종 스포츠행사나 문화행사를통해 한국과 교류폭을넓힐것같다고전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北京의 중·소副外相회담으로 지난봄부터 시작된 중·소접근이 기정사실로 정착된 것같다고 분석, 이같은 변화가 중·소분쟁을 전제로 했던 소련의 아시아외교에 轉機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在캐나다동포一同 2천1백캐나다弗
電話業協會 孫羽秀회장 外 3백 만 원
安繡山여사(島山安昌浩선생 長女) 1백50만원
在美島山紀念事業會朴相俠회장 1백 만 원
在泰韓人一同 金錫鍵회장 外 2천4백弗

<25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金錫鍵회장

▲全國電話業協會(회장 孫羽秀)=3백만5천원 【日刊스포츠접수】
▲島山 安昌浩선생 長女 安繡山여사=1백50만원
▲在美 島山紀念事業會長 朴相俠씨=1백만원
▲在泰國韓人一同(회장 金錫鍵)=美貨 2천4백63달러(태국貨5만6천4백밧) (個別명단2면) 【방콕지국접수】
▲在캐나다 동포一同(1차분)=캐나다貨 2천1백20달러【최등용씨(무역인)=1천달러·최원오씨(럭키·드레이퍼리사장)=1백〃、김승택씨(전한인회이사)=1백〃、최성태씨(초대체육회장)=50〃、박현배씨、박문배씨=2백〃、박용씨(도너츠샵경영)=1백〃、박대인씨=2백〃、元모씨=1백〃、박진근씨=1백〃、이상은씨=20〃、백용민씨=1백〃、김충헌씨=50〃】 【터론토지사접수】
▲興明運輸(株) 임직원및운전기사一同=64만원
▲서울시컴퓨터、휴게실협회 정화추진위원회 종로구지회장 이천민씨外一同=40만8천원
▲三友플라스틱(株) 代表 林原喆씨外一同=30만원
▲동아후지칼라현상소임직원一同=25만원
▲龍山區厚岩洞29통주민一同=23만5백원

興明運輸임직원·기사 64만원
컴퓨터휴게실協(鍾路) 40만원
三友플라스틱代表 外 30만원
동아후지칼라 현상소 25만원
厚岩洞29통 주민一同 23만원
大巡眞理會(서울 성수2지구) 25만원
〃 (서울 중곡8지구) 17만원
〃 (原州市지구) 17만원
〃 (中原지구) 16만원
〃 (서울 중곡3지구) 13만원
〃 (서울 중곡7지구) 11만원
〃 (서울 망우3지구) 11만원
〃 (서울 면목3지구) 10만원
〃 (포항7지구) 11만원
〃 (禮山지구) 10만원
在사모아 한글학교 3백50弗
東大門시장 동심회 10만원
在日埼玉縣 姜致煥씨 10만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성수동2지구 대표 이중특씨外 道人一同=25만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중곡동8지구대표 류재명씨外道人一同=17만원
▲(종단)大巡眞理會江原原州市지구대표 申龍順씨外道人一同=17만2천원 【原州지국접수】
▲(종단)大巡眞理會中原지구대표 배승덕씨外道人一同=16만1천5백원 【忠州지국접수】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중곡동 3지구 대표 신진수씨外 道人一同=13만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중곡동 7지구 대표 김재덕씨外 道人一同=11만6천5백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망우리 3지구 대표 최선금씨外 道人一同=11만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면목동 3지구 대표 이봉례씨外 道人一同=10만원
▲(종단)大巡眞理會 포항제7지구 양학동 대표 천영특씨外 道人一同=11만원 【포항지국 접수】
▲(종단)大巡眞理會 忠南禮山邑지구 金永坤씨外 道人一同=10만원 【예산지국 접수】
▲在사모아한글학교 (교장 이송자) 학생一同=美貨 3백50달러
▲東大門시장 동심회 (이규석씨、이창근씨、최병근씨、김창수씨、우상원씨)=10만원
▲在日本埼玉縣鳩ケ谷市辻一五七三 姜致煥씨=10만원
◇고침=21日字 경주 태화종합고등학교 학교법인 송암학원은 태화종합고등학교 維技財團학교법인 송암학원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알림=記事넘쳐 接受分일부명단은 27일字에 싣습니다。

誠金명단 2面에 계속

올겨울 더춥다

美-日 기상전문가들 豫告

"한국등 20世紀 최대寒波우려"

멕시코火山재·寒流 일찍 형성·太陽黑點 감소로

계절보다 빠른 영하의추위가 전국을 휩쓸고있는가운데 세계의 기상전문가들은 이번겨울은 유난히 추울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기상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한국을비롯한 북반구지역에서 유례없이 춥고도 긴 겨울을 맞게될것이라고 내다보고 어쩌면 금세기 최대의 한파를 겪을지 모른다고 예고하고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 4월 멕시코에서 폭발한 화산재가 지구북반구를 떠돌며 태양열을 차단하고있으며 ▲지구북반구에서 불고있는 제트기류가 금년에는 북극을 향해 이동하지않고 도중에서 흩어지고있으며 ▲일본북쪽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북태평양에 예년보다 일찍 한류가 형성돼있다는 점등을 들고있는데 미국등 북부지방은 예년보다 2~4주나 가을이 빨리 닥쳐 이러한 조짐을 뒷받침해주고있다。

또다른 학자들도 태양흑점의 감소와 북반구가 이미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냉각설을들어 이상한파의 예상을 뒷받침 하고있다。

국내기상관계자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날씨에대한 장기예보를 못하고 있으나 몇년째 계속되는 추운겨울 날씨가 금년에도 계속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는 79~80년 겨울과 80~81년겨울이 연달아 추운날씨였고 지난겨울도 한동안 이상난동을 보였다가 갑자기 기온이급강하、추운날씨가 계속되었었다。

한편 지난주말부터 기온이급강하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날씨는 霜降이자 휴일인 24일과 25일 중부지역등 일부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내려가는 초겨울 날씨를보였다。

24일의 기온은 서울이 0도1분 春川 영하2도7분 大關嶺이 영하9·9도까지 내려가는등 중부내륙은 영하의 날씨를 보였고 25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1도 大田 영하2도5분 水原영하3도1분을 기록했고 漢拏山에는 올들어 첫눈이 내리기도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러한 날씨가 25일낮을 고비로 점차풀려 예년의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예보하고 금년겨울의 혹한여부는 11월이 지나야 그향방을 가늠할수 있다고 밝혔다。

韓·시에라리온外相 經協증진등을 論議

李範錫외무장관은 25일 하오 외무부에서 압둘라이·오스만·콘테시에라리온外相과 韓·시에라리온 외상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및 양국의 경제협력증진방안등을 협의했다。

해외就業者 반입 國產品 免稅폐지

관세청은 해외취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있는 국산가전제품에 대한 현품면세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취업 근로자들을위해 이들이 귀국할때 현지에서 국산가전제품을 현품이나 쿠폰으로 사가지고 들어올경우 면세조치를 해오고있으나 일부 수출업자들이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고있어 내년부터는 쿠폰제도만을 존속시키고 현품면세제도는 폐지할 방침이다。

地平線

2차대전이 끝난 뒤 지금까지 세계각지에서는 1백49번의 전쟁이 있었다고한다。이것은 영국정부가 노동당 의원의 요구에따라 만든 자료에서 밝혀진 숫자다。지난6월 현재로 미국무성이 감시하고있는 전쟁은 11군데였다。레바논、포클랜드、이란―이라크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와동남아、그리고 중남미에 걸쳐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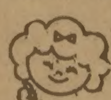
▼돈만아니라 세계는 막대한돈을 군사비로 쓰고있다。시계바늘이 똑딱굴러서1분이 지날때마다 세계는 1백만달러가 넘는돈을 군사비로 쓰고있다한다。우리돈으로 쳐서 7억5천만원이다。하루 1조8백억원이라는 돈이다。이것은 미국의경제학자 시봐드라는 사람이만든 보고서의주장이다。그는 미사일이 서유럽에서모스크바까지 가는데 6분이걸리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물한통을 길기위해 매일몇시간씩 걸어야 된다고 비꼬고있다。

▼미국의 레이건행정부는 지난 8월 소련과의 사이에 핵전쟁이 터질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민방위계획안을내놨다。지금까지의 민방위계획은 기습공격을받았을때 근처의 대피호에 피신시키는것이었다。그러나 새로운민방위계획안은 핵전쟁이 예상되는 며칠전에 대규모 피난작전을 펴자는 것이다。1억4천5백만명의 피난 계획이다。

▼전면적인 핵전쟁이터질경우 2억3천1백만명의 미국인가운데 절반이넘는 1억3천9백만명이 죽을것이라는게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이다。새로운 계획은 생존자를 2배로 늘리자는 것이다。인구5만이상의 도시와 공군기지、핵잠수함 기지、미사일기지、그리고 주요공업지대등 약 4백군데의 주민들을 재빨리 농촌지역으로 피신시키자는 계획이다。

▼소련도 세계최대규모의 민방위계획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지하철역을특수방어시설이돼있고 모스크바지역에는 주요 간부들 11만가구가 들어갈수있는 대피호시설이 돼있다。그러나 아무리 꽁꽁 숨어도 핵전쟁이 터지면 인류멸망의 날이 될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해왔다。미국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우드교수는 15억이 죽을것이라고 계산하고있다。

▼스톡홀름과학원이 만든 보고서는 핵전쟁에 살아남았다해도 7~20%는 수주이내에죽고、방사능에 쐰 사람의80%는 암에걸리고 2%는 불임증、나머지는 기형아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그러나 미국의 핵물리학자 에드워드·텔러박사는 지구종말이란 천만의 말씀이라고 단언하고 나섰다。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어느쪽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살아남는다 해도 끔찍스런 얘기에 틀림없다。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혼수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엄마 얘기가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얘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교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다년간 쌓은 보험관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위해 성실한 일꾼으로 봉사드릴 것을 다짐하오며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
강경범 올림

● 1978~1981 동해생명보험(주) 영업소소장.
○ 연수및 교육강사
○ 생명보험협회 Agent. 시험관리위원
※현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근무
(B)233~6236　(R)279~7774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M9B 3Y8

Gyung Bum Gang

蘇 巨物KGB요원 英亡命

前테헤란駐在 副영사 親蘇「투데」共産黨 책임자

【런던UPI聯合=AP聯合】 蘇聯비밀경찰 KGB요원으로 암약중이던 前테헤란주재 소련副영사 블라디미르·안드레예비치·쿠지치킨(35)이 최근 영국으로 망명해왔다고 영국정부가 23일 발표했다.

영국내무성은 쿠지치킨이 지난22일 영국에 입국, 남부 서섹스의 모처에서 당국의보호아래 집요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헤란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쿠지치킨이 지난6월 근무지를 이탈, 잠적했다고 전했다.

영국소식통들은 쿠지치킨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 소련과 이란의 親蘇투데공산당관계에 책임을 맡았던 『거물급』 정보요원이라고 말했다.

쿠지치킨이 영국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정식으로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영국내무성 대변인은 그가 『체류허가를 받았다』고만 밝혔다.

런던주재 소련대사관외교관들은 이번 사건에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으나 영국언론들은 소련대사관측이 쿠지치킨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영국당국은 이를 쿠지치킨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紙는 쿠지치킨이 서방세계로서는 10년만에 처음 맞아들인 『거물급 소련정보원』이라고 말했다.

선데이·타임즈紙는 이란정부가 쿠지치킨의 망명직후 투데黨 사무실들을 여러차례 수색하여 수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英선 蘇스파이 스캔들

蘇語번역관 西方情報 전달

【런던AP聯合=聯合】 영국의회는 24일 소련을 위해 스파이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 영국인소련번역관이 영국 극비의 전자정보센터를 이용, 2차대전이래 소련측스파이로서는 가장 깊숙이 西方정보활동에 침투했다는 美뉴욕·타임즈紙보도와 관련, 마거리트·대처수상에게 이를 해명하도록 요구했다.

테드·리드비터 영국노동당소속하원의원은 이날 세계각처의 정보를 수집하는 영국의 국가정보센터인 영국서남부 첼턴햄소재 정부통신본부에서 소련어번역관으로 일하던 제프리·아더·프라임(44)이 그같은 스파이행위를 했다는보도에 대해 『우리가 현재 우려하고 있는것은 영국의 국가적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있는지의 여부』라고 강조하면서 대처수상에게 그같이 요청했다.

리드비터의원은 또 타임즈紙 보도가 英정보기구들의취약성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관리들이 영국의 보안누설사건에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것을 영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間諜활동한 英제프리 對蘇간첩활동혐의로 구속중인 英國의 제프리·아더·프라임의 지난7월17일 체포당시 모습。【런던24日AP聯合=聯合】

蘇諜者 잠입한 英國의「첼턴햄」情報본부

세계적 諜報網중심지

매일 盜聽한 수백만交信단어 分析

지금까지 소련의 가장 성공적인 정보침투의 목표가된 잉글랜드 첼턴햄근처의 영국정부정보본부(GCHQ)는 세계를 향한 서방의 귀로 통한다.

런던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정보센터는 세계적인 첩보망의 중심지인 동시 감시선 함정기 인공위성 수신안테나등의 중심지로서 영국은 물론 미국·호주·캐나다등에까지도 정보분석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있다.

매일 도청해낸 수백만개의 교신단어들을 1만명의 직원들이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외국의 군사시설과 정부부서및 대사관 기업체및 개인들의 전화 텔렉스 TV 컴퓨터 송신등을 도청, 녹음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수집된 정보는 매일 영국정보기관인 MI5및 MI6을 비롯 미국의 국가안보국(NSA)、호주의 방위통신국(DSD)、캐나다의 국가정책협의회(NRC)通信局등에 보내진다.

정부대변인은 첼턴햄정보센터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으나 간행물에 의하면 GCHQ의 연간예산은 수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西獨 20萬근로자 示威

콜首相의 賃金동결에 抗議

【본聯合=聯合】 헬무트·콜수상이 이끄는 새중도우익정부의 경제정책에반대하는 西獨근로자 20여만명이 23일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등 주요도시에서 대규모의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계속되는실업문제와 6개월간의 임금동결및 일부사회보장제도의 폐지등 정부의 내핍정책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이 새 정부의 출범이후 처음 벌인 대규모시위인데 이날 시위를 주관한 西獨노조연맹(DGB)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경우 항의시위가 잇따를것이라고 위협했다.

노조지도자들은 그러나 西獨의 실업자수가 이미 1백80만명에 달해 대대적인 파업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으며 8백만명의 근로자를 회원으로 갖고있는 DGB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노조원들에게 파업을 촉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美 요격미사일網 구축필요

와인버거國防 새MX체제보호위해

【워싱턴UPI=聯合】 캐스퍼·와인버거美국방장관은 23일 美國이 새로운 MX미사일체제를 보호하기위해 요격용미사일(ABM)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케이블·뉴스·네트워크방송에 출연, 칼럼니스트인 에반스、노바크씨와 대담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만일 미국이 ABM망을 구축하게될 경우 이는 무기통제에 관한 미·소간 협정들을 위반하는 것이기때문에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대통령이 오는 12월1일까지 말썽많은 MX미사일배치에 관한 대통령의 방침을 의회에 통보키로한 것을 레이건대통령이 틀림없이 지킬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사일 배치에 관한 갖가지 방안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波、바웬사夫人 알몸수색

男便면회후 聲明·書信찾으려

◇막내딸을 안고 있는 다누타·바웬사。

폴란드 당국이 억류중인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의 부인은 23일 보안군이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기위해 자신을 알몸으로 만들고 2살과 4살 밖에 안된 두딸마저도 발가 벗기려는 만행을저질렀다고폭로했다.

다누타·바웬사여사는 이날 그다니스크의 자택에서 AP기자에게 자신이 두딸을 데리고 22일 동남부 프세미슬인근에 억류중인 남편을 면회하고돌아오던 길에 이같은 치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바웬사여사는 보안군여자대원들이 자신과 두딸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한후 남편으로부터 밀반출되는 성명 또는 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으며 당시의 공포분위기에 눌려 그들이 하자는대로 할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바웬사여사는 특히 옆방에서 옷을 안벗으려는 두 딸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을때 가슴이 찢어지는듯했다고 말하고 보안군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지 아이들에 대한 알몸수색은 포기한채 그냥 몸수색만 하더라고 덧붙였다.

바웬사 여사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치를 떨면서 당국이 남편으로부터 밀반출되는 성명 또는 서한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군이 끝내 아무런 단서도 찾지못했다고 전하고 이들이 그간 불법억류해온 남편을 합법적으로 옭아맬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이같은 야수같은 짓도 불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바웬사여사는 남편이 연금된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항의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강제해체된 자유노조 대신 들어선 관제노조를 지지해 줄 경우 석방시키겠다는 제의를 일언지하에 묵살하기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바르샤바=AP】

海外토픽

美 실업률 1% 늘때마다 自殺者도 3백18명꼴增加

미국은 실업률이 1%증가할때마다 자살자가 3백18명꼴로 늘어나는것으로 최근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미 윌리엄즈대학의 모톤·샤피로교수등 2명의 노동경제학자가 1940년이후의 연방통계자료를 분석, 연령별 자살률을 증가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분적으로는 자살이 실직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고.

실업률이 6%에서 10%로 뛰어오른 해의 자살이 1천2백72명 늘어나 %당 증가는 3백18인 셈이라고.

이 학자들은 그러나 하루평균 75명의 미국인이 자살하는것에 비추어보면 실업으로인한 자살은 그리 흔치않은것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즈타운(美 매사추세츠州)=AP】

경찰幹部 3백52명退職

계급停年단축으로 來6월까지

경찰의 계급정년제 단축으로 내년6월까지 경위급이상 경찰간부 3백52명이 퇴직하게된다.

25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하게되는 경찰간부는 경무관8명, 총경13명, 경정21명, 경감55명, 경위2백55명등이다.

李在武기자 歸社

한국일보 政治部 李在武기자는 12일동안 中東의 오만國의 현황을취재하고 24일하오 歸社했다.

人事異動

韓國電氣通信公社 ▲올림픽通信支援本部 李相福 ▲올림픽組織委連絡室長 張末鉉(25日字)

한국일보 詩壇

계절풍

임덕원

겨우내 失足하며
온몸으로 눈뜨던 날벌레들
한여름 墓地 위를 미끄럽게 날으는
반딧불의 춤 춤을 위하여

平凡한 어느 달
바람이 주고 가는것은 무엇일까。

소용돌이 치는 大陸의 사랑을 두고
머언 바다로 나아간다。
東西南北 사방에서 몰려와
무더기 무더기로 지는 쓰린 가슴들
어린 날의 꿈꾸던 죽지 닮은 눈송이도
무겁게 가라앉는다。

파도는 드세어 모래城을 허물고
內陸의 꽃들을 시들게 하지만
게 한마리, 절룩이며 부리어 놓는
五大洋 바다 바다 긁어모은 짠 눈물
사연 깊은 소금 粒子들,

속 있는 것들은
썩어서 빛나며
빛나는 凝血의 이마들
다시는 추워하지 않는다。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6>

周恩來

鬪士·調停者기능 겸비한「君子型」

文革동조했지만 不安感…現代化에 미련

내가 처음 중공을 방문했던 1972년, 나는 방문 7개월전에 헨리·키신저 안보담당특별보좌관에게 밀명을 띠어 北京으로 보냈다。나의 방문에 앞선 사전준비를 교섭하기 위해서였다.

키신저는 비밀리에 北京에 이틀동안 머물면서 17시간 이상을 周恩來수상과 광범위한 토의를했다。키신저는 돌아와 보고를 하면서 周恩來는 자기가 만났던 정치가 중 드골과 비견할만한『가장 인상적인』인물이라고 말했다。

나는 周恩來를 만나 일주일간 협상을 벌이면서 키신저의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는걸 이해했다.

나는 중공방문을 마치는 한 만찬석상에서 건배를 들면서 周恩來에게『우리는 여기에 일주일동안 머물렀소 이 일주일이야말로 세계사를 바꿔놓은 일주일이었소』라고말했다。

周恩來는 공산주의 혁명가이면서 유교적 군자였다。그는 이념에 충실했는가하면 냉철하게 계산하는현실주의자였고 정치적 투사인동시에 위대한 調停者였다。

키신저는 내가 周恩來의 협상기술을보면 놀라게 될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의말은 옳았다。모든 협상에는 상징적인 문제와 실질적 문제가 포함되게 마련이다。

毛澤東과 회담을 마친후에 周恩來와나는 최초의 본격적인 회담을 갖기위해 자리를 함께했다。周恩來는 내가 중공에 옴으로써 내가 과거 중공에대해 갖고있던 편견들을 불식했는가를 알아보기위해 미묘한 상징적인 문제를 들췄다。

周恩來는『당신이 오늘 하오 毛주석에게말한 것같이 우리는 악수를 나눴소。그러나 덜레스장관은 그걸 원하지 않았소』라고 말했다。

내가『당신도 그와 악수를 나누지않으려 했다고 말했잖소』라고 응수하자『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요。나는 했을거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자, 우리들은 악수를 나눌거요』하면서 다시한번 탁자위로 손을 내밀었다。

周恩來는 산뜻한 모양의 회색 孫文服을 입고있었고「인민에게 봉사하라」란 리번을 달고있었다。73세의 나이에 비해 그의 머리는 검은 편이었고 흰머리는 드문드문 나있었다。

우리들의 화제는 정치에서부터 역사、철학에 걸쳐 다양한 것이었는데 周恩來는 어느 분야에나 정통해 있었다。周恩來는 학자출신의 혁명가답게 사고의 깊이와 날카로움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그의 이념이 그의 사고에 너무 깊이 침윤돼있어 역사에대한 이해를 왜곡할 경우도 있었다。예를들면 미국의 독립전쟁당시 영국 식민주의자들에 대항해서싸운 프랑스군을 周恩來는「지원병」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극히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훈련된 직업군인들이었다。

周恩來의 천재성은 투사와 조정자라는 상반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점에서 나타났다。한번은 어느 기자가 그에게 중국인 공산주의자로서 자신을중국인기질이 더많다고 보는가 공산주의자적 요소가 더 많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周恩來는『공산주의자보다는 중국인적 기질이 더많다』고 대답했다。물론 그의 동료들도 모두 중국인들이었다。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동료들은 공산주의자를 앞세웠고 중국인은 그 다음 순위로 꼽았다。

周恩來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깊이 신뢰하고있었으나 그의 신념을 극단적으로밀고나가는것이 그의 천성은 아니었다。

수상으로서의 周恩來는 정치와 정책면에서 무자비한것보다는 책략적인면을 택했다。

그는 사회적 격변을 치르지않고 방대한 경제개혁을 실시했는데、이는 경쟁자들에게 해가될 경우도 있었고 이로울경우도 있었다。

짧은시일내에 많은일의달성을 요구하는 반대편 극단론자들에 대항하여 그는 계획에따라 점진적인 경제현대화작업을 일관성있게 추구했다。

외교문제에관해서 특히 毛澤東은 周恩來에게 많은재량권을 준듯 했다。나와 毛澤東이 처음 회담을 시작했을때 국제문제가거론되자 毛澤東은『그문제는 나와토의할것이 아니라 수상과 얘기해주시오。나는철학적인문제를 토의하고 싶소』라고 말했다。

毛澤東과 나는 정상회담 의제에 오른 모든 문제들을 토의했으나 어디까지나 철학적 견해에 관해서 였다。

周恩來와 나머지 회담을 해나가는 동안 가장 흥미로왔던 것은 그가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毛澤東이 납한 지침에 맞는가 가끔 비교해본 것이었다。

◇毛澤東㊧과 周恩來의 1950년대의 모습。중국공산혁명과정에서 만난 이두사람의 동지애는 평생을 일관했다。

◇1972년 2월 닉슨㊧이 중공을 최초로 방문했을때 周恩來가 北京공항에서 닉슨을 안내하고있다。

키신저는 전에 北京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周恩來는 문화혁명에 관해 얘기할때 자신의 불안감을 거의 감추지 못하더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다。

이것은 놀라운일이 아니다。周恩來는 평등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위해 싸운 혁명 1세대에 속하는 공산주의 지도자 였다。

그런가하면 그는 단계적 경제현대화를 추구한 선두주자이기도 했다。따라서 그에게는 문화혁명의 목적에 동조하는 일면이 있는가하면 중국이 모든 인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가오는 몇10년안에 방위력을 증대시키려면 평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경제가 현대화되어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는 또 다른 일면이 있었다。

에드거·스노가 묘사한대로『시인이 아니라 건축가』였던 그는 성난 紅衛兵들이 현대화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감출수 없었을 것이다。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毛澤東과 周恩來사이의 오랜 동지적 우정을 확인하게되는 일화가 있다。

일단의 홍위병들이 周恩來에 대해서『브르좌의 부패한 두목, 혁명을 목적으로 교묘하게 행동하는 희롱자』라고 부르며 그를 재판에 회부하려고 했다。

홍위병들의 이같은 주장을 들은 毛澤東은『좋다。나도 그와함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조건에서라면』하고 대답함으로써 홍위병들을 그냥 물러가게했다。

"共産主義者보다는 中國人기질"

그로부터 9년뒤 周恩來의임종이 다가오자 몇년동안 거의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있던 毛澤東은 병원으로 찾아가 周恩來와 최후의 몇시간을 같이했다。毛澤東은 의사를제외하고는 周恩來와 마지막 말을 나눈사람이었다。

周恩來의 유교적인 덕성은 중국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받았다。그는「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들은 유일한 公人이었다。

周恩來의 인기가 중공의 정치사중에서 독보적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망했을때 가장 잘 나타났다。TV뉴스가 방영되자 周恩來의장례식에 참석한 毛澤東의 처이며 극좌파인 江青의 모습이 비쳤다。江青은 무례하게도 周恩來의 시신에게 고별인사를 하면서 모자를 벗지않았다。그러자 TV를보던 군중들은『저런 쳐죽일 년!』하고소리를 지를 정도였다。

그의 장례식에서 周恩來가 직접 지명했던 당시 鄧小平부수상이 읽은 조사는 너무나 애달픈 것이어서 뒷날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毛澤東과 周恩來와 나눴던 대화를 회고해 보면 이두 사람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해야될 일과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비교해보면서 많은 감회에 젖은 듯했다。

그들은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周恩來는 마지막 해에 毛澤東이 지어보낸 시를 받았다。

그 시는 그들 두 사람의 가슴에 차있는 근심을 읊은 것이었다。그두사람의 근심은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미래상과 사명감은 다른 것이었다。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좋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들 속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빅·세븐 선물센터
코트 대매출
LONDON FOG
○울트라스웨드 남자용 여자용
특별할인봉사
● 진풍웅담 ● 녹용(인삼 제품)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테프와 비데오테프 다량입하!
랜빅 넥타이, 지방지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古美術商 중앙회장도 한몫

文化財 밀반출 企圖

金銅佛등 寶物級포함 26점 日에 팔려다 들통 5명구속

◇압수된 신라시대 보물급 금동불상。앞줄 左로부터 金銅誕生佛과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등。

서울지검특수3부(宋宗義부장검사)는 25일 한국고미술상중앙협회회장 申基漢(62·서울中區新堂洞333의37) 尹哲守(40·한국고미술상중 남지부회장 충남天安市多町洞338의10) 李京美(32·무직·경기城南市深谷洞山54) 黃正夫(39·무직·충남牙山郡溫陽邑溫泉里127) 尹丙完씨(34·회사원·서울江南區大峙洞313)등 5명을 문화재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문화재26점을 압수하는한편 중간상朴準祥씨(49·경기始興郡果川洞주공아파트 115동406호)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동품감정의 권위자인 申씨는 지난 1월27일께 李씨가 일본에서개최되는 골동품이회에 참가하기위해출국하려는것을알고 삼국시대 청동거울3점을 8백만원에팔면서 일본에가면 거액을받을수있다고 종용했고 李씨가 1월하순께 출국할때 공항에나가 청동경과 자신의 소유인 이조후기백화2점을 공항문화재감정관에게 자신의 신분증이용,모조품으로인식시켜 밀반출시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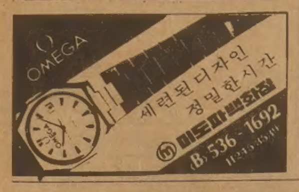
李씨는 이들 문화재를 일본에 있는 친척인 재일동포에게 판매를 의뢰했으며 또 지난 8월23일께 다시 일본骨董이회에 참가한다는 구실로 尹哲守씨로부터 삼국시대 금동불상 1점을, 申씨로부터 삼국시대 토기 3점을 각각1천5백만원과 2천만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조품으로 위장출국해 오사까거주 玉林씨에게 판매 의뢰했다는 것이다.

申씨는 이때도 李씨에게 일본 골동품수집가 玉林씨를 소개하는 한편 金浦공항 문화재감정관에게 모조품임을 주장하여 출국을도와주었다.

이들은 또 지난 13일께 수배중인 朴準祥씨와 공모하여 신라시대 金銅彌勒半跏思惟像등 보물급 불상 3점과 李朝백자 2점등을 일본인에게 1억5천만원에, 新安유물靑磁陽刻硯蓋文大盤등 2점을 3천만원에 국내재벌등에 팔기로 모의한후 원매인을 물색하려다 검거됐다.

이번에 압수된 金銅誕生佛과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은 新羅때의 것으로 전高麗제저사장 金元奎씨 소유였으며 金씨는 이들 불상을 81년5월 1점에 1천만원씩에 朴準祥씨(수배중)에게 판뒤 미국이민을 떠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점의 불상은보물급으로 현재 「한국미술 2천년전」에 수록되어있는 보물급이다.

◇수배자명단▲朴準祥▲朴永煥(50·골동품상·大田市)▲徐正八(40·〃大邱市)▲金錫善(39·仁川市東區花平洞233)



온라인預金制 잇단事故

銀行代理가 또 5천만원 빼내 潛跡

또 은행직원의 온라인사고가 생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龍山區葛月洞69 중소기업은행 龍山지점 보통예금계 대리 崔모씨가 지난 16일 상오10시께 고객 이광순씨(28)가 두차례에걸쳐 예금시킨 5천만원을 컴퓨터 원장에 입력시키지도않은채 빼내 잠적했다.

피해자 李씨에 의하면 지난13일부터 이 은행과 보통예금거래를 해오다 지난16일 2차례에 걸쳐 4천1백만원과 9백만원을 직접 崔대리를통해 입금시켰다는것.

당시 李씨는 崔대리로부터 무통장입금증을 받았는데 지난22일 돈을찾으러갔다가 잔고가 없음을 알고 은행측에 항의,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李씨에 의하면 지난 16일 崔대리를 만나 5천만원을 온라인으로 예금시킬때 崔대리가 직접 무통장입금증까지 써주어 예금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22일 돈을찾으러갔으나 잔고가 1백10만원 밖에 없었는데 은행에따지자 崔대리는 이미 사표를낸채잠적한후 였다고 말했다.

수사에나선 경찰은 ▲崔대리가 지난 8일자로 은행에 사표를 낸 뒤 16일 이후 행방을 감추고있으며 ▲李씨의 예금기록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있지 않아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예금했는지 여부도 崔대리가 나타나야 알 수 있다는 은행측의 진술로 ▲崔대리가 평소 사채문제로 고민해왔다는 사실을밝혀내 빚에 쪼들린 崔대리가 온라인 예금제도를 악용, 돈을 먼저받은뒤 가로채고 무통장입금증만 李씨에게 건네준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한편 경찰은▲李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이름으로 2천5백원을 예금하고 거래를열었다가 이튿날인 14일 9백만원을 예금하고 그날로 9백만원을 찾아갔으며 18·19일에도 2백만원과 3백만원을 예금시켰다가 19·20일에 걸쳐 5백만원을 찾아간점등을 들어 崔대리가 이용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중이다.

崔대리는 사건이 공개되자 지점장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시일내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1년7개월전 龍山지점에 부임한 崔대리는 Y대를 졸업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살고있다.

유행성出血熱 첫 發生

경북榮州·醴泉서

【榮州】경북榮州시와 醴泉郡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유행성출혈열로보이는 환자가 1명씩 발생했다.

25일 榮州시내 순장병원에 따르면 지난22일 榮州市休川3洞 신현길씨(45)가 고열과 혈압이 떨어지고 목안에 붉은반점이 생기는등 유행성 출혈열증세로 입원, 치료를받고있으며 醴泉郡甘泉面 美石里 손영희씨(45·여)도 같은증세로 입원, 가료중이라는 것. 【聯】

6세女兒 유괴범檢擧

5百萬원요구…犯人은 失職20代

【釜山】부산東萊경찰서는주택가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를 유괴, 돈을 갖고오라는 협박편지를 보냈던 김도수씨(21·무직·釜山鎭區堂甘洞)를 25일낮 12시20분께 부산역 분수대에서 검거, 미성년자 약취유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유괴, 만이틀동안 데리고 있던 주모양(6·東萊區溫泉2洞)을 부산역앞 미원장 다방에서 무사히 찾아냈다.

범인 김씨는 지난 23일하오 3시30분께 부산시 東萊區溫泉2洞 萬景春박사 동상 뒤편 놀이터에서 오빠와 함께 놀고있던 周성鎬씨(32)의 장녀 주양(6)과 오빠 근(9·온천국교2년)에게 접근, 오빠에게 미리 준비해 있던 편지봉투를 주면서『나는 아빠친구인데 이속에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으니 빨리 집에 갖다드리라』고 한뒤 주양을 장난감 비행기를 사주겠다며 꾀어 유괴했었다.

김씨는 주양을 유괴한뒤 그 길로 택시를 대절, 大邱로가 이틀간 지낸뒤 돈을 받기로 약속한 25일 아침 시외버스편으로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검거됐다.

김씨는 주양의 오빠편으로 보낸 편지에서『아이의 목숨이 아깝거든 현금5백만원을 25일 낮12시 정각 부산역 분수대앞으로 갖고 나오라』고 협박했었다. 【聯】

울릉도 앞바다서 漂流屍 6具발견

【浦項】24일하오 3시20분께 경북 鬱陵앞바다 80마일 해상에서 조난선원으로 보이는 6구의 시체가 표류하고 있는것을 鬱陵郡苧洞한소속 제305호 동경호(45톤·선장 박재구·31)가 발견, 鬱陵경찰서에 무전으로 신고했다.

선장 박씨에 따르면 이날 초속20m인 강풍과 우박이 쏟아 폭우로 항해를 중단,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중 5백m 거리에서 이들 6구의 시체를 발견, 인양하려 했으나 파도가 심해 접근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聯】

사실審理 모두마쳐

李·張어음사건 結審공판은 내달1일에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제3회공판이 25일상오10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는 1·2회 공판때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32명에 대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보충신문이 있었다.

결심공판은 오는 11월1일 상오10시에열려 검찰 구형과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李圭光·孔德鍾피고 들것에누운채 出廷

○…이날 공판에는 李圭光피고인과 孔德鍾피고인은 따로 앰뷸런스에 실려 법원에 도착, 들것에 누운채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1, 2회공판때 신병으로 출정하지못했던 李圭光피고인은 지난 8월9일 1심선고때이후 77일만에 법정에 나온것.

李피고인은 하늘색담요에 싸여 계속 눈을감고 있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윈얼굴로 병색이 뚜렷했다.

李피고인은 10시30분께 들것에 실려 법정에 옮겨졌으나 신문을 할수없어 결국 20분만에 퇴정했다.

이날 李피고인이 입정한직후 재판부가 인정신문을 하려하자 鄭明來변호사가 들것에 다가가 건강을 조차 한후 『도저히 신문에 대답할수없는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李圭光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된 전법무장관 白翔起변호사는 이날공판에서도 특유의 달변을 과시, 변호인이 제출한 소송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상오10시 정각 입정한 張玲子피고인은 먼저 입정해 있던 남편 李哲熙피고인의손을 맞잡고 반가운표정이었고 웃옷소매속으로 내의를 만져보며『추운데 어찌지냈느냐』며 말을 건네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았다.

張피고인은 또 李피고인의 목부분을 잡아주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으나 李圭光피고인이 들것에 실려 마지막으로 입정하자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닦았다.

◇安繡山여사가『선친의 유품이 독립기념관의 첫전시품이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있다。왼편이 安여사의 장남 필립·커디씨。

島山장서·日記帳등 百여點

독립기념관 寄託절차 協議

장녀 安여사 本社찾아 百50萬원 誠金도

島山 安昌浩선생의 장녀 安繡山여사(65·미국로스앤젤레스거주)가 25일 張在九한국일보사장을 예방,독립기념관 건립성금 1백50만원을 기탁하고 선친의 장서, 일기장등 1백여점의 유품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는 절차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朴相俠 美洲島山기념사업회장, 필립安씨의 양아들 피터·리·安씨와 함께 23일 내한한 安여사는 이날『선친의 유품들을 간수하던 오빠 필립安씨가 4년전 작고한뒤 유품들을 조국에 기증키로 가족끼리 합의를 봤다』고 밝히고 그 유품 가운데는 장서가 2백여권, 선친이 上海임시정부 총리로 재직하던 1920년1월~3월에 쓴 일기장 3권, 미국에서 영자신문을 만들때 쓰던 타자기등이 있으며 이번 방한중 휴대해온 목록을 가지고 문공부, 국립박물관 관계관들과 기증할 목록을 확정하게 될것이라고말했다.

지난 73년 선친의 남녀 島山묘원이장식때 다녀간후 10년만에 고국을 찾은 安여사는 내년2월께 이들 유품을 서울로 보내고 선친의 忌日인 3월10일에 기증식을가지기를 희망했다.

安繡山여사는 광복 37년만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적인 모금이 전개되어 매우 기쁘다며『선친의 유품들이 이곳에 기증되는것을 큰보람으로여긴다』고말했다.

2차대전당시 美해군장교로 복무한일있는 安여사는 프랜시스·커디씨와 결혼, 슬하에 장녀 크리스틴·커디씨(30·변호사)와 장남 필립군(25)등 남매를 뒀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동생 繡羅씨(63)·남동생 必英씨(54)와 함께 무게이트란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安여사와 함께 한국일보사를 방문한 美洲지역 島山기념사업회장 朴相俠씨도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했다.

夫婦싸움후 一家5명 燒死

忠武

【忠武】24일 상오4시께 경남統營郡光道面竹山里875의4 白永鶴씨(37·농협統營지부소속 운전기사)집 안방에서 불이나 白씨의 처 李鍾玉씨(31), 장녀 순연양(10), 차남 주호군(4), 2녀 순임양(1)등 일가족 5명이 불에타 숨졌다.

경찰은 집주인 白씨부부가 평소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일가족 자살을 기도한 방화사건이 아닌가 보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聯】

기독교 지도자들 조찬기도회 가져

【釜山】나라와 겨레를위한 부산시 기독교지도자 조찬기도회가 25일상오7시30분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최종호 부산시장을 비롯 기관장과 시내 4백여교회지도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기도회는 연합교회고위한 특별기도에이어 오전중현동무사의 나라와 영도자를 위한 앙성결교회 차형구목사의 국가발전을위한 조찬기도찬송 축도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목사는 이날 특별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설경속의 축복이 우리나라에 내려져 복지사회가 되도록 축복을빌며 술과 煥대통령께 각별한 축복이 내려져 온민족이 존경하고 신뢰받는 지도자로서 복지국가가 이룩될것을 확신한다고 기도했다. 【聯】

뚝 떨어진 水銀柱속 이틀사이 火災 6件

한살어린이 숨져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인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전국에선도 5건의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井州】25일 새벽 3시25분께 전북井州시 水城洞606의13 김용희씨(37)집에서 불이나 김씨의 아들 성진군(1)이 숨지고 김씨의 어머니 국채경노파(69)가 중상을 입었다. 【聯】

이혼한 前妻와 同居남자 殺害

【大邱】大邱서부경찰서는25일 이혼한 전처와 동거중인 5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전명기씨(27·大邱市南區南山洞2270·금속직공)를 살인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이날 상오11시 50분께 大邱시西區內唐洞1011 8 배정호씨(70)집 아랫방에 세들어 살고있는 이혼한 전처 은명숙여인(27)과 은여인과 동거중인 한계원씨(52)등 2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과 배등 전신을 마구찔러 죽인 혐의이다. 【聯】

5行뉴스

◆유엔의날 37周 기념식 【釜山】제37주년유엔의날기념식이 24일상오10시 부산南區大淵洞 유엔묘지에서 盧載源외무차관, 崔鍾錫부산시장, 유엔군사령관을 대리한 美19지원사령관 프레더·E·에람소장및 주한외교사절단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聯】

誤差"제로" 스카이다이빙 챔피언 李千述상사

20년을 새같이…"스포츠의 極致"

얼마전 特戰司가 주최한 제2회 고공강하 경연에서 한 스카이다이버가 다섯차례에 걸쳐 직경 10cm의 목표지점에 컴퓨터로 잰것처럼 한치의 착오도없이 착지했다. 그의몸은 마치 새처럼「大」字로 빙글빙글 휘돌기도하고 독수리처럼 머리를 숙여 쏜살같이 내려꽂히기도 했다.

관중들은 그의 묘기에 넋을잃었고 그에게「鳥人」이란 이름을 붙여주기에 인색치 않았다.

오차 제로(0m0cm)란 경이적인 기록을 보인 이「鳥人」은 육군7135부대 李千述상사(41·사진)。79년과 80년의 고공강하경연에서도 우승한 李상사는 1천3백20회란 점프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내제일의 스카이다이버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새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가 창공에 삶을 시작한것은 올해로 꼭20년이된다. 지난62년 육군공수단에입대, 고공강하훈련을 받았다. 처음엔 2천5백피트에서 뛰어내려 바로 낙하산을펴는 초보훈련이었다. 그러나 차츰 산소마스크를쓰고 1만피트이상에서 강하, 낙하산을 펴지않고 떨어지는 프리 폴기법을 차례로 익혔다.

그후 2만5천피트상공에서 몸을 던져 28분동안 활공(滑空)하며 지상거리 48km를 이동하는 진기한기록도 세웠다.

『구름 하늘에 몸을던져 공기를타고 새처럼 날아가 동료다이버들과 손을 맞잡고 群舞를하는 새떼처럼 창공을 수놓은 스카이다이빙은 스포츠의 극치입니다. 또 남녀가 다 할수있는 운동이고요』

『스포츠의 극치』란 그의 말에는 아직도 일부 제한된 사람만이 이운동을하는 아쉬움이 서려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술전기로 이용코자 일부 군부대에서 양성한 다이버가 다수있고 민간은 대학생등 약2백명 정도。항공기 이용등의 어려움이 많아 아직은 초보단계다.

현재 외국에선 올림픽종목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높아 머지않은 장래에 올림픽종목이될 전망도선다. 신형낙하산이 다소 高價(미화3천3백달러)이긴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어떤의미에선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곁들인다.

그러나 창공에서 몸을 날려 하늘에서 동료를 다시만나는「鳥人」의 기쁨을 확인하고 지상에내려앉을때 그 쾌감을「경제적」이란 용어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을듯하다.

【申鉉鈺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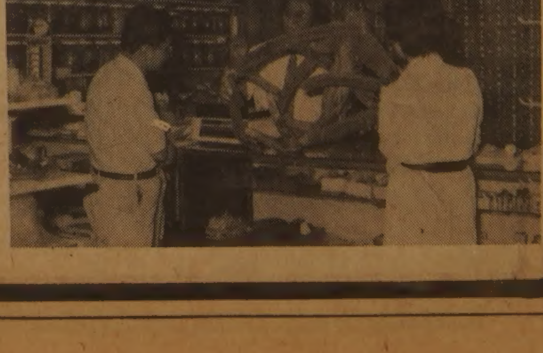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합비타민	●Nut 일체	●중 풍	●고혈압
●인 삼	●녹 용	●심장병	●부인병
●웅 담	●사 향	●간장병	●양기부족
●산 삼	●홍 삼	●비만증	●위장병
●우황청심환	●보 약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남은 말 ⑨

메아리

金 昌 悅 <編輯委員>

모를 것이 있어서 몇군데 전화를 걸었다. 아침 신문에서 班常會를들탄 살인사건기사를 보고, 공교롭다 생각하는 한편으로, 문득 의문이 생긴것이다.

그 첫째는 班常會가 일제히 열리는 법적근거다.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들은 해답은 이런 것이었다.

統과 班은 地方自治法(145條)의위임을 받아 市郡조례로 설치한다. 조례에 의하면 班長은 필요에 따라 班회의를 소집한다. 전국의 市郡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갖고 있으므로 전국에 統班조직이 있으나, 班常會가 일제히열리는 것은 「行政指導」가 있기때문이다.

법에비추어 統班은 행정조직이 아니、 이른바 住民組織이다. 일정한 지역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지역단체적住民組織이라 할 것이나,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니므로 민간조직이라 할 수는 없다. 굳이 가려보면 統班은 洞里와 마찬가지 末端行政的인 것과, 隣保단체적인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統班의 성격이 이렇게 복합적이라 그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무행정의 홍보는 언제나 隣保단체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실제의 운영은 아무래도 末端行政的인데로 흐른다. 두가지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는 것은 그 양면이 모두 희미하다는 말과도 통한다.

그 한가지예가 한달에 한번씩 전국 32만개의 班常會가 일제히 열린다는 획일성이다. 이런 것이 「行政指導」의 위력인지는 몰라도、統班의 한쪽 성격만을 돋보이게하는 결과를 빚는다. 한 家口 한 사람만이 참석하는 모임을 위하여、텔리비전3채널을 몽땅 할애한도 그런 인상을 준다.

統班의 성격이 법대로라면、그 「行政指導」에도 스스로 한계가 있음직하다. 내무부가 班常會 날짜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그런 한계선을 깨달은 것일때 같았다.

班常會 소식을 들으며 생각한 다른 한가지는 그 이름、그 발음이다.

班常會는 班의 常會—정기적으로 여는 회합—이다. 그 뜻을 억지로 표기하면 「班·常會」요、「班常·會」는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발음이나 語感이 좀 달랐으면 싶은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班常會는 「班·常會」로도 들리고 「班常·會」로도 들린다. 뒷것처럼 들렸다 싶을 때는 班=「양반과 상민」을 연상하여 찜찜하다. 나만 그런가 했으나、지난5월 宣事國會 질문에서도 그런지적이 나왔으니、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班常會의 발음을 고분고분 「班·常會」로 들더라도、그 것이 日政治下의 쓰던 말이란데서 오는 꺼림칙함은 언제나 남아돈다.

나 자신은 日政때 班常會참석을 권유받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다. 그 덕에 班을 통해 나오는 배급은 언제나 맨 나중이었다. 집안 내력으로 찍힌 「非國民」의 낙인이 그렇게무섭던 그 시절을 班常會란말이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나만의 감정일까.

한 다리건너 들은 얘기라 옮기기가좀 뭣하지만、班常會가 전국일제히 열리기 시작하던 무렵、어떤 사람이 내무행정의 고위책임자에게、하필 日本式 이름을 답습한느냐고 물었더란다. 그에 대한 대답이、그런 명칭이라야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어 간다고 하더라는것이다. 농담치고는 정말 질 낮은 농담이다. 농담 아니라면 겁나는 얘기다.

우리말의 80%가 한두에서 들어온 말이다. 나머지 말중에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 또 얼마나 될지는 헤아릴수 조차 없이 많다.

그러나 班常會는 들어온 말이 아니라 남은 말이다. 못잊을 수치와 아픔과 더불어 남은 말이다. 올 여름 내내 들끓은 「克日」운동이 곧장 말의 淨化운동으로 번지고 있는데、정부 스스로 行政用語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마당에、班常會란 남은 말은 왜 끄떡도 않을까.

그 말이 남아 있는한 지금의 統班이 법대로의 두가지 성격중 한쪽에 치우친 인상을 씻지는 못한다. 이것은統班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가와는 전혀 별개의 얘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0>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⑰

햇빛속의 보일러공은 결코 예술인 아니었다. 수지와 동갑나기 아니면 한두살 아래쯤으로 보였다. 그는 힘세 보였고, 얼굴이 검고 울퉁불퉁했고, 작은 눈이 우울한듯하면서도 선량해 보였고, 손은 억세고 더러웠다. 그리고 그에겐 여자에게 위협을 느끼게할 폭력적인데와 여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같은 믿음직스러움이 함께 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2중성은 양면이 다 섬뜩하도록 심상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이니까 심심하다고 할수있다. 당시로선 생급스러운 조야(粗野)함이었다. 세련되지못한 촌스러움이었다. 그런건 아무래도 좋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자기자신에게 있었고자기자신의 문제가 보다 중요했다.

그의 이런 심상함때문에 수지는 자신을 마치 마당의 늦가을 햇살속에서 빛이 바래가는 마지막 장미처럼 느꼈다. 마지막 장미는 곧 흔적도없이 기화해버릴것처럼 생기없이 고즈넉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히 손볼수 있어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뻐드렁니가 두터운 입술을 비집고 나와 그의 인상을 허술하게 만들었다.

『집안이 온통 검은연기에 휩싸였었는데두요. 곧 보일러를 끄고나서 주인양반이랑 식모랑 뛰어들어가더니 어찌어찌 불을 잡긴했지만요. 그동안에 동네집에서 연락을했는지 소방차가 다오는 난리를 치르고 나서 어찌나 놀랐는지 여지껏 보일러끈채 지내구있어요』

『이쪽에서 기름이 샜을뿐이에요』

수지의 담담한 수다에 비해 그의 대답은 지나치게 간단했다.

『파이프를 갈려면 큰공사가 되겠네요?』

『아뇨, 파이프가 삭은게 아니라 구부리는방법이 나빠서 그렇게 된거니까요』

『잘 하는 사람이 한건데, 좀 오래 되긴 했지만, 혹시 재료를 속여먹은게 아닐까요』

『아뇨, 구태여 잘못을 따지려면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될 일을 빨리 한것 밖엔』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수지는 민망해서 한다는 소리가

『차 한잔 하시겠어요?』

『손 봐 드리구요』

그가 연장망태를 들고 혼자서 지하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오래지않아 돌아나와서 차 한잔 주시겠습니까? 했다.

수지는 무슨 차로 할까 물어볼까 하다가 대접이 지나친 건 모자랄만 못할것같아 코피를 두잔 탔다. 손수 코피를 탄 것도 우습고 보일러공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려는 자신의 속셈은 더군다나 이해할수 없었다.

그는 무례한지 무신경한지 소파를 잠식한 흰 레이스 뜨개이에 기름때에 전 작업복을 마구 부비며 기대앉았다. 수지는 조바심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청자빛 작은 찻잔에 달린 어린이의 귀바퀴처럼 섬세하게 생긴 손잡이에 어울리지 않게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다. 그리고 더러웠다. 마디 굵은 그의 집게손가락이 손잡이를 간신히 꿰고 찻잔이 위태롭게 매달린 걸 보면서 수지의 조바심은 계속됐다.

혹시 그 더럽고 큰손을 만져보고싶어서 그렇게 조바심했을이 아닐까? 결아의 애기를 들으면서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다.

名人戰 第14가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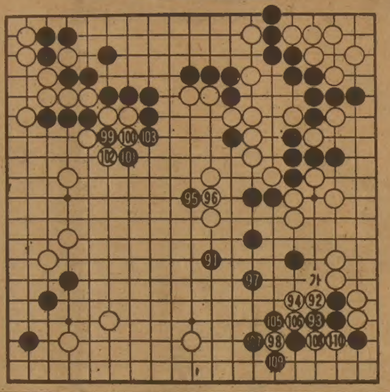
第2局 第6譜 94~110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盧永夏
黑 (6段) 張秀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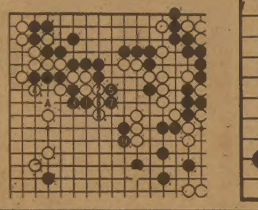
黑91로 요소를 점령하고 95를거쳐 97로 정비한것은 중앙白에 총공격을 가하자는 태도가 분명한데 盧7단은 白92、94를 활용하여 우하黑을 白98로 공격했다. 그러나 張6단은 이쪽을 외면하고 黑99로 끊더니 101로 맹렬하게 회돌이를 쳤다. 좌상의 버림돌인 黑3점을 활용할 시기가 온것이다.

『드디어…』하면서 한동안 생각끝에 白102。 盧7단은 엉뚱한 표정이다. 이수로 선뜻리 참고도의 白2는 黑3에 잇고 「A」의 장문을 보면 白4가 절대。 이때 黑5이하 9로서 黑1 중앙白대마가 위험하다。 하기야 黑103 다음에도 중앙白을 한수로 잡는 묘방은 보이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 준비공작으로 黑105이하의 대담한 작전을 단행했다。 白110까지 막한 손해를 각오하고 그 의곽부터 견고하게 다져놓았는데 과연 어떨까。 수순중 白108은 109는 黑108이면 「가」에 끊는수가 생긴다。 【104…이음】 【一凡】



黑、大膽한 작전



헝가리에 「公認비틀즈팬클럽」

「날사랑…」배포20돌 創立총회에 女性열광
80歲 보브·호프、짝찬 스케줄 意慾的활동
공상과학 공포영화「기생충」 歐洲 휩쓸어

海外演藝화제

◇비틀즈가 해체된지 12년。 그러나 헝가리에 팬클럽이 결성되는등 동구권국가들에서 뒤늦게 선풍이 일고있다。

○…동구권국가에서는 처음으로 헝가리에 공인 비틀즈팬클럽이 결성됐다. 이국의 정식승인을 받은 팬클럽은 비틀즈 최초의 싱글레코드인 「날 사랑 해줘요」배포20주년기념일을 맞아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퇴출이가는 사태를 빚었다.

부다페스트의 언론인 티보르·파비안씨가 산파역을 말은 팬클럽 창립총회에는 헝가리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영화와 일반인들로는 구하기 힘든 비틀즈노래감상기회가 주어졌다. 파비안씨는 『창립총회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광적이어서 젊은여자들은 낡은 비틀즈 영화를 보면서 흐느끼고 괴성을 지르는가하면 곳곳에서 샴페인이 터졌다』고 전했다.

비틀즈클럽은 12월중에존·레논의 아들 줄리언을 초청, 레논추모제를 개최하고 1만5천명수용의 부다페스트 메인경기장에서 5일간의 비틀즈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80회생일을눈앞에두고 있는 보브·호프는 지금도 노익장을 과시, 30대못잖은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있다. 올해로 연예생활 45년이 되는 호프는 웬만한 스케줄속에서 TV스페셜쇼에 출연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12개의 라디오와 33개의 TV에서 35백편이 넘는 라디오 쇼와 백50여편의 TV스페셜에 고정출연했고 게스트로 출연한 것은 그 회수를 기억하지 못할정도다. 보브·호프쇼가 이처럼 장수하면서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어떤 포매트와 기준에 얽매이지않고 항상새롭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는 『세상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다. 새로운 얼굴、새로운 시추에이션、새로운 유행등이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모든새로운 것들에는 새로운 유머가 있다』고 강조한다.

○…3D입체공상과학공포영화 「기생충」이 세계극장가를 휩쓸고있다. 미국에서 히트한뒤 유럽에서도 인기를얻고있는 이영화의주인공은 식인상어나 악어가아니라 상어잇빨에 물어 사는 아주작은 기생충 한마리.

살인적 생물무기의 잠재력을 갖고있는 기생충이 특수금속관에서 엄청나게커져 박으로나와 사람들을 몽땅쪼아먹는다는 줄거리로 입체영화 관람용 특수안경을 끼고보면 관객이 직접 공격을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기생충 모델은 여러개가만들어져 사용됐는데 모든동작은 3~4명이 조작하는 단추에 의해 조정된다. 【第一線】

아기엄마의 첫출근

하늘이높고 말이 살찐다는 이 가을 어느 날 나는 전에 그만 두었던 직장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3년전에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식의 직장생활이 싫증도 났거니와 첫아이 출산관계로 그만두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직장문을나섰었다. 그사이 벌써 그첫애아이가 만두살이 지나고 이제 4개월된 아기와함께 난 그동안 두 아이의엄마로 변해버렸다.

직장을 그만둔뒤의 생활은 그야말로 외부와는 완전 차단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만 골몰했다. 뜻밖에 다시 옛직장으로 돌아오고보니 그동안 기름칠을 하지않아 잔뜩 녹이슬어있던 내머리는 회전이 잘되질않는다. 날마다 마스코트처럼 붙어다니던 아이들 어떻게 떼어놓을까가 큰고심거리였다.

막상 첫 출근을 한는아침 『엄마 가 감기걸려 아야하는데 병원에가서 주사를 꼭맞고 빨리와줘 할머니란 집에서과자먹고 놀아 응』 하면서 달랬더니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빨리 갔다와』 하면서 손 까지 흔든다. 그 모습이 하루종일 마음을심란하게 한다. 미국에선 애기도 엄마따라 직장에 함께나와 일을 하는곳도 있다는데 우리네실정으론 꿈같은얘기이고 더군다나처럼 공무원에게는 더더욱 아득한 미래의 얘기 같다.

그동안 엄마가 빨리오지 않는다고 떼를 쓰며 울지나 않는지, 밖에 나가 놀다가 애들하고 싸워서 울지나 않는지! 차조심이나 하고 노는지 종일 걱정이다. 【박근영·경북 구미시·비산아파트 단동-10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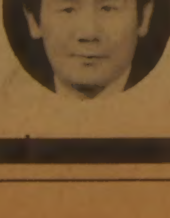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 16인치 $135
□ 18인치 $150
□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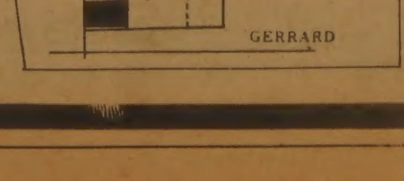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최저가격
·최대봉사
·최고품질

*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PICK-UP 또는 주문) ($150이상)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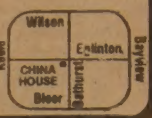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NEW CANADA SAVINGS BONDS

LES OBLIGATIONS D'EPARGNE DU CANADA

12%
첫해

캐나다 저축채권

캐나다 저축채권은 투자하기에 안전합니다.
당신의 좋은 이자율을 가지며, 필요시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읍니다.
다음의 사항이 새로 발행된 캐나다 저축채권의 주요내용입니다.

- 첫해 12% 이자율
- 만기까지 다음 6년간 최소 8½% 이자율 보장
- 이전(만기가 안된)채권도 역시 1982년11월1일 시작때까지 12% 이자 획득.
- 개인 구매한도 $35,000
- 1982년11월8일까지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지불 안함.
- 캐나다 정부에 의해 뒷받침.
- 쉽게 현금화 됨.
- 은행에 맡기든지,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음.
- 또한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카나다저축채권에 관해 알아보십시요.

당신은 어디에 맡기든, 투자하든 새로운 캐나다 저축채권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읍니다.
지금 구입하십시요…

언제든지 이 채권 판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요.

10월25일부터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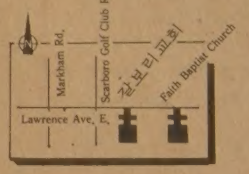
Canada

-부흥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데니스·굳델(Dr. Dennis L. Goodell)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부흥회를 준비하였읍니다.
굳델목사님의 증거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북미와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으며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읍니다.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과 병 고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로 마음 준비하시고 꼭 시간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설교하시고 우리말로 통역해 드립니다. 영어를 잘 아는 젊은 학생들도 특히 초대합니다.

다 음

강사 : 데니스·굳델목사
(Dr. Dennis L. Goodell)
일시 : 1982년10월31일(주일)~11월4일(목)
매일오후7시30분
장소 : 10월31일(주일)부터 11월3일(수)
까지는 갈보리한인장로교회
(3817 Lawrence Ave. E. Scarborough)
11월4일(목)은 Faith Baptist Church
(3837 Lawrence Ave. E. Scarborough)



갈보리한인장로교회
당회장 목사 안병한 올림

☎ : 755-7979, 431-3635,
431-7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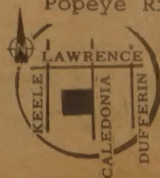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November 1 - November 13		SPECIAL
Tootsie Pops	100x.5¢	$ 3.19
Leaf 25¢ Ballgum Deal	7 boxes + 1 box free	29.10
Rowntree Aero Thick and Yorkie Thick	36x49	11.95
Love Heart	36x10	2.35
Pal Pop	96x.5	2.85
Hershey Big Block Bar (Milk pecan + Raisin almond)	36x55	12.69
Chocolate +.Vanilla Wafers	24x10	1.50
Lee's Snowball	36x29	6.79
Tootsie Taffy	24x30	4.29
Neilson Bubbles	36x40	9.99
Popeye Rings + Soothers	48x10	3.1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홀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싼값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사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신분, 약간명 모집함.
658½ Bloor St. W.
전화 : 537-0432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하이디 ● 파커 캄파니

가게 경험있고, 영어할수 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교통편한 다운타운지역. 주중 스테디 풀타임 JOB.
전화: 699-3953, 960-0376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그로서리스토아 메니저 구함
주매상: $5,000 ★스탁은 전부 인수받아야 함.
전화: 782-7254(낮12시~오후6시)

캐네디안회사에서 일할 여직원 구함
영어 잘 해야하고 타이프 60자이상 치는자.
전화: 677-4749(MR. 리) 미시사가지역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함.
몬트리얼에서 레슨함. 선생: STEPHEN CH'IN
주소: 4328 RUN SHERBROOKE, WESTMOUNT.
전화: 932-7000
All grades, Royal Conservatory, All Festivals, Competitions, or for Personal accomplishment

---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댄 스

개인·소구룹·단체·출장지도.
교사: 김유수 문의: 742 -4208.
체계적인 교안으로 철저히 책임지도하며 주말지도도 가능함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Space Rent
꽃·과일·버라이어티가게 적합.
도로 확장공사 완료.
대형공장및 Plaza가 신년초 Open하는 지역.
346 Weston Rd.(St. Clair 와 Rogers 중간)
자세한문의는: 763-3289, 365-1489(오후)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버섯농장과 커다란집 매매함. 더이상 알고자 하시는분은 연락주세요. 영어 편지로 문의 바람.
FRANK MOLICA
R.R. #4 Bowmanville
Ontario, L1C 3K5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으로….
전화 : 783-0134 오후4시-8시사이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Flower Shop 매매함. 스카보로지역. 생긴지 5년반되고 작은 Plaza내. 영업시간은 조절됨. 리스 약4년. 렌트 월 $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438-2411(저녁 7시이후)

◉Milk Cooler(문 5개짜리). 길이가 10Ft.
◉아이스크림 캐비넷과 Shelf 매매함.
전화: 881-0757 MR. 리

가 구 매 매
자개상 3개·자개3층장 2개·자개문갑 1개
전화: 536-1721(가게), 363-1410(집)

비데오아케이드가 딸린 가게 팝니다.
바데오머신 15대. 가게주매상: $4,500. 내방바람.
651 QUEENSTON RD. STONEYCREEK, ONT.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베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여행사를 위탁 경영 또는 인수 받으실분 찾습니다.

P.O. BOX 152
STATION P.
TORONTO, ONT. M5S 2S7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화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R)533-9061, 241-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 팍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응)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비데오 게임머신 버라이어티스토아,그로서리스토아 그리고 음식점. ◉24시간 써비스.
전화: 636-0906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보십시요.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